

VI. 議 事 錄



1. 開 會 式

司會【許南整 (社)韓
日經濟協會 專務理事,
以下同一】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 이번 회의의 진행
을 맡은 한일경제협회의
전무이사 허남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1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단상에 계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본 측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측 단장이신 이이지마 히데타케 일한경제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양국 정상 회담의 후속 조치로 오늘부터 킨텍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일부품소재조달 공급전시와 관련 일본 총리 특사로 참석하신 타카이치 사나에 일본경제산업성 부대신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게이에 토시노리 주한일본국특명전권대사님이십니다. 다음은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실 이토 모토시게 동경대학 대학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

야시 야스오 제트로 이사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국 측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측 단장이신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 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축사를 해주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님이십니다. 다음은 한일경제협회 명예 회장님이신 김상하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명예회장님 이십니다. 이어서 한국측 기조연설을 해주실 조환익 KOTRA사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4월 15일 하루 앞서 방한하신 일본측 단장단 10분은 4월 15일 오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님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님을 예방하였고, 그리고 오늘 4월 16일 오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후에 킨텍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부품소재조달공급전시회 개막식 참석하였으며,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님이 주최하시는 오찬회에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선 의장선출과 의제채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 관례에 따라 주최국측 단장께서 정의장으로, 방문국 측 단장께서 부의장으로 취임하시는 것과, 사전에 배포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제가 채택되었음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團長人事

司會 : 그럼 먼저 식순에 의하여 양국 단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먼저 한국측 단장이신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趙錫來

韓國側 代表團 團長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서울에는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한일 양국의 기업인 여러분을 모시고 제41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경제협력과 우호친선을 위해 멀리서 오신 이이지마 히데타네 단장님을 비롯한 일본 대표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국 대표단 여러분에게도 감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축사를 맡아 주신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님과 다카이찌 사나에 경제산업성 부대신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조환익 KOTRA 사장님, 하야시 야스오 JETRO 이사장님, 이토 모토시게 종합연구개발기구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KINTEX에서 개최된 “한일 부품소재 조달·공급 전시회”에 다녀 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부품소재 산업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일간 무역의 확대균형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양국정상간 합의에 따라 열린 것으로서 두 정상은 한일협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전시회에 참가하고 계신 일본 기업에

감사드리며 전시회를 통해 많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일 양국의 정상이 만나 양국의 현안을 논의하고 서로간의 우의를 다지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두 분이 환히 웃으면서 만나는 모습은 한일경제협력을 다루는 우리들로서는 정말 보기 좋은 장면입니다. 한 때 양국 정상 간의 사이가 서먹서먹해져 아쉬움을 느낀 때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일관계가 좋아져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양국의 경제협력이 잘 되어야 할 것이며, 무역과 투자, 기술 및 인적 교류 등을 활성화시켜 우호선린의 관계를 더 한층 높여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몹시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생긴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세계가 하나의 단일시장으로 되어 간다고 많이 이야기 해왔었습니다만, 이번 위기를 맞고 보니 정말 전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어려움은 어느 한 나라가 홀로 극복하기는 어렵고, 전 세계적인 공조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보호주의를 막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이웃인 한일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여 함께 극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양국 국민들이 좀 더 가까워지고 서로 믿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국민들은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펴면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개방과 경쟁이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제도를 바꿈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관계도 정부의 엄격한 법 적용으로 불법 파업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노조 스스로가 임금을 동결하거나 임금협상·단체협약과 같은 노사교섭도 회사에 위임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어 외국 기업들에게 좋은 투자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일본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잘 활용하여 대한 투자를 늘린다면 한일 양국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게는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경제인 여러분!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지닌 국가로서 아시아의 발전을 주도하고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입니다. 한일 두 나라가 굳건한 신뢰와 우애를 바탕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멀리서 와주신 일본 대표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조석래 단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일본 측 단장이신 이이지마 히데타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飯島 英胤

(IIJIMA Hidetane)

日本側 代表團 團長



일한경제협회의 이
이지마 히데타네입니

다. 이번에 41회 째를
맞이하게 되면서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
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
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이
렇게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주
신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님, 김상하 한
일경제협회 명예회장님, 그리고 다카이치
경제산업성 부 대신님, 시게이에 일본국
특명전권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한일 양국에서
출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금년 한일
양국을 둘러싼 경제 환경은 작년에 발생
했던 금융 위기, 그리고 이에 따른 실물
경제 경기 후퇴에 따라서 세계가 동시 불
황에 빠지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매
우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
다. 이처럼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
일 경제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영향에 대해 사실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년 아니 그 이상으
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자 여러분께서 출
석을 해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양국의
경제 정세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내일을 위해
협조할 수 있는 견고한 우정과 우호 관계
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축해나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속담에 질풍이 불면 경초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폭풍우
가 몰아쳤을 때 비로소 어떤 풀이 강인한
지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

다. 그야말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아서 그리고 더욱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강인한 경영구조, 사업구조를 구축해서 한국과 일본이 미래를 향해 서로의 연대를 강화하고 해외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아세안은 물론이고 널리 국제 경제 사회에서 매우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열렸던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야구가 세계 강적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열렸던 월드 베이스볼 대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팀이 매우 힘든 시합을 이겨내고 결승전을 치른 것은 그야말로 한일 양국의 야구가 세계 야구를 선도하는 리더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경제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 이 강자들이 서로 연계하는 것은 틀림없이 세계 경제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는, 또는 재패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 서틀 외교가 진행되면서 양국의 정치·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한 때 냉각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매우 안정되고 양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소 총리 취임 이후 이 서틀 외교가 더욱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안정된 정치 외교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교류와 인적 교류, 문화 교류, 더 나아가 지역 간 교류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교류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 교류 중에서도 실질적인 또는 실질적인 교류이기도 한, 앞서 조석래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일 간에는 상담회, 혹은 전시회가 올해에만 다섯 차례가 열릴 계획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들

간 킨텍스에서 일본에서는 59개 기업, 단체가 참가를 해서 한일부품소재조달공급 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관과 민이 하나가 되어 추진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상담회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산업기술협력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한일 간 상거래, 또는 사업 연계를 일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 4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 정보 센터를 양국 단체에 각각 마련을 해서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제품의 조달과 수입, 생산 위탁, 사업 연계 등에 대해서 정보 교환과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약 다섯 건의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활동을 재단의 중요한 중심축의 하나로 추진해나가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국의 무역구조 개선에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경제 교류 면에 있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무역역조의 확대입니다. 작년 11월 이후 한일 양국이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양국 간 무역도 크게 감소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2년간의 무역액을 살펴보면 892억달러로 과거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측에 327억 달러의 무역 흑자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균형 잡힌 무역 방식에 대해 저희에게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계자라면 누구나 기업은 물론이고 업계, 정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담회와 전시회, 그리고 나아가 정보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이러한

목적을 갖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잡힌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착실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실적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한일 양국의 EPA, FTA 협상 재개와 그 체결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일 EPA, FTA검토에 참여한 지 벌써 10년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왔습니다만 아쉽게도 진전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2004년 11월에 협상이 중단된 이후 아직까지 협상이 재개되고 있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9년 2월 양국 간 외무 장관 회담이 열리면서 그 자리에서 협상 재개를 위해 실무 차원의 협의를 심의관급으로 격상해서 검토를 가속하는 데 서로가 합의를 한 것은 매우 큰 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계도 일본 정부를 뒷받침해서 협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생각입니다. EPA,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양국 모두에게 각각 힘든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서로가 배려를 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에게 주어진 당면의 과제와 중장기적인 이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대국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치적인 리더십에 기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 때도 이 자리에 계신 재계 여러분들이 정부를 뒷받침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속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

로 나아가고 있다고 실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의가 이틀 간 매우 제한된 시간에 열리기는 합니다만 여러분의 협조 하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뜻 깊은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인사말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來賓祝辭

司會 : 이이지마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내빈 축사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측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님께서 축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李 允 鎬
知識經濟部 長官



존경하는 타카이치 사나에 일본경제산업성 부대신님, 이이지마 히데타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시게이에 토시노리 주한일본국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국 경제인 여러분! 제41회 한일 경제인회의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을 방문한 일본 경제인 여러분께 거듭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본도 지금 봄꽃이 한창이겠지만, 한국도 개나리·목련과 같은 봄꽃들이 활짝 핀 요즘이 일년중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이렇게 따사로운 봄날 서울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뜻깊은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일경제인회의가 올해로 벌써 마흔한 번째를 맞았습니다. 한일관계의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

회의가 계속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양국 경제인간의 꾸준한 대화와 협력이 양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나아가 이러한 민간 경제교류가 양국관계에도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열리는 올해 한일 경제인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동반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한일 경제인들이 서로의 지혜를 모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도출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지난 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우리 두나라 간 경제협력이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는지에 대해서는 긴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당시 2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규모가 450배나 늘어 지난해 89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한국은 일본에게, 또 일본은 한국에게 서로 세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미국에 이은 두 번째 대한투자국으로서 한국에 투자한 일본기업만 3천개가 넘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일본이 미국과 EU를 제치고 한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나라간의 교류는 경제를 넘어 방송, 음악, 영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아나 온사마가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이나 노다메 칸타빌레와 같은 일본드라마도 많은 한국인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WBC야구대회와 세계피겨대회에서 양국

선수들이 보여준 멋진 경쟁은 한국과 일본 국민이 서로를 친숙하게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국민간의 인적교류도 계속 확대되어 가까운 일본으로 주말 온천여행을 다녀오는 한국인과, 한국에서 쇼핑과 관광을 즐기는 일본인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한국과 일본을 오고 간 양국 방문객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과 일본은 더욱 가까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작년 2월에는 한국에서, 4월에는 일본에서 양국 정상에 회담을 가졌고 2005년 이후 중단되었던 셔틀외교를 복원시켰습니다. 올해 1월에는 아소 총리가 셔틀외교를 통해 한국을 방문해 우리 경제인들과 뜻 깊은 만남도 가졌습니다. 지난 한해 외교·안보나 정치,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바로 경제협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난 12월에는 한일 통화스왑을 130억 달러에서 300백억 달러로 확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양국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는 양국 정상외교의 커다란 성과이자 그만큼 두터워진 두 나라간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테이블의 출범도 매우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한일 정상에 큰 틀에서 협력을 합의해도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은 기업인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두 차례의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일 경제계는 무역·투자 촉진대책을 비롯해 환경·에너지·신재생 분야의 협력과 부품소재 산업에서의 투자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이나 한일 FTA교섭 재개를 위한 환경조성 등에 대해서도 유익한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41회 한일경제인회의 기간 중 39개의 일본 기업으로 구성된 투자 비즈니스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의 구체적인 성과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국의 기업인 여러분, 오늘 오전에 한일 부품소재 조달공급전시회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부품소재 분야는 양국간 경제협력에 있어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이고 또 협력가능성도 가장 많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직접 개막식에 참석하셨지만, 이 분야 협력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는 매우 각별합니다. 지난해 4월 정상회담에서는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 의사를 직접 밝히셨고, 부품소재 분야의 협력 진척상황을 수시로 꼼꼼히 챙기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구미, 포항, 익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등 4개 지역에 부품소재 전용공단 지정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본격적인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용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물론, 입지와 세제, 금융 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는 부품소재 전용공단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모두 이익을 보는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본의 앞선 부품소재 기업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 분야의 기술개발을 더욱 촉진할 수 있고, 양국의 오랜 경제현안인 대일 무역역조의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 또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아시아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생산기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이 공동 기술개발에 나서거나, 한국 강점인 LCD나 IT, 조선 산업 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파주전기초자’나 ‘아사히글라스’ 모두 일본 기업들이 진출하여 한국에서 성공하고 있는 이러한 협력의 좋은 모델들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일본의 동경과 오사카에서 부품소재 투자유치 로드쇼가 열리게 됩니다. 로드쇼는우리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대한 일본기업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사입니다. 존경하는 한·일 기업인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세계경제 성장률이나 세계무역증가율 모두 올해가 2차 대전 이후 최악이 될 것이며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세계 각국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며, 최근 국제 금융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실물경제의 침체는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불안요인들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한두 가지의 호전된 지표만으로는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선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1930년대 대공황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외에도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많아 그때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아시아 지역이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여지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서, 또 아시아 경제의 핵심리더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

호무역주의 억제에 대한 양국의 단호한 의지와 협력확대가 필요합니다. 최근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의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세율 인상과 같은 전통적 방법에서부터 환경규제를 앞세운 수입 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호무역조치가 발동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무역 조치로는 결국 아무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보호무역이 보호무역을 부르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세계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세계경제의 공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 제1항으로 담은 것도 바로 이런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운영으로 자유무역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보호무역주의 억제를 위한 국제 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양국이 자유무역에 대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교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끊임없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도 지적하셨지만 바로 대일 무역적자의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대일 무역적자가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산업 구조상의 문제이고, 또 경쟁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일 무역역조 해결의 열쇠가 한국 기업들이 부품소재 분야에서 하루빨리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큰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더욱 분발해야 할 분야가 바로 이러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대일 무역적자는 양국 경제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의 틀 안

에서 이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역균형은 축소지향형이 아니라 확대지향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부품소재 전용공단이 여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일본기업이 참여하고 투자해서 좋은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저희 한국 정부는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일 양국이 아시아 경제권의 협력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이상의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금융측면에서의 취약성도 원인이 되었지만, 충분한 내수 기반 없이 미국·유럽 등의 소비에 의존한 경제 성장이 또 하나의 큰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통해 내수기반의 성장 패턴을 강화해야 합니다. 역내 분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역내 국가 간 투자교류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 양국도 기존의 분업관계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집약적인 분야로 협업을 확대하면서 상호 이익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투자환경을 정비하고, 산업·기술 교류 촉진, 사업정보 제공 등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여 양국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에 여기 계신 일본 기업이나 한국 기업인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양국

기업이 녹색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새롭게 펼쳐질 녹색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한일 FT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양국간 무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한일 FTA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양국간 FTA 협상은 지난 2005년 중단된 이래 아직 공식적인 협상 재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양국 경제계는 한일 FTA의 추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양국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과 12월에 양국 과장급 실무협회가 개최되었고, 올해 초 양국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실무협회의 수준을 심의관 급으로 한 단계 높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일 FTA는 관세철폐로 인한 시장접근성 개선도 중요하지만 양국간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일 FTA는 양 당사국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향한 새로운 촉매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도 필요합니다.

한일 FTA가 양국간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산업·기술 협력 확대를 통해 가시적 성과들을 많이 도출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며, 양국 경제인들이 이를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일본 속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도 이와 똑같은 속담이 있는데 어느 나라나 세상은 이치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한일 양국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보다 큰 성장과 발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위기 극복에 가장 좋은 해법은 서로간의 지혜를 모으고 협력을 확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배타적인 경쟁’ 보다는 ‘상생과 협력’이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양국 기업의 협력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많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더 가슴을 열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이윤호 장관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일본 측 축사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키텍스에서 개최되는 한일부품소재조달공급 전시회에 일본 총리 특사로 오신 경제산업성 다카이치 사나에 부대신님께 축사를 부탁드립니다.

高市 早苗
(TAKAICHI Sanae)
日本經濟産業富大臣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이이지마 히데타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님 그리고 한일 양국의 경제계 대표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일본 경제산업 부대신인 다카이치 사나에입니다. 이번에 저는 한일부품소재조달공급전시회 개막식에 맞추어서 총리 특사로써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소 총리의 이번 전시회에 대한 바람과 관심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제 41회 한일경제인회

의가 개최되어 이렇게 인사말씀 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작년 2월 취임하신 이후 이 경제인 회의는 이미 두 번째 개최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도 이미 두 번 개최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아소 총리께서 일본의 주요 경제인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셔서 한일양국 정상에 참석하신 가운데 한일양국경제인들께서 회담을 개최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의 행보와 역사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례없이 자주, 또한 고차원적인 내용으로 한일 간의 경제교류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저는 한일부품소재조달공급전시회, 즉 일본에서 말하는 역건본시의 개최식에 한국과 일본의 내외 귀빈 여러분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전시장에 직접 오셔서 일본의 수출 부스에 대한 설명을 진지하게 열심히 듣고 계셨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일본이 한국에서 개최하는 첫 역건본시를 도입해서 주로 한국으로부터의 부품소재조달 확대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삼아 일본의 수요자, 수요 기업들이 조달 샘플을 전시해서 상담회를 개최하는 형식입니다. 이 전시회는 작년 4월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방일하셨을 때 그때까지 중단된 한일 EPA, FTA 교섭 재개를 위한 환경 구축의 하나로써 정상 간에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 경제인회의에서는 의제 제목으로서 한일 EPA, FTA협상 재개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향후에 한일 간의 경제교류의 강화라든지 또 확대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한일 간의 EPA, FTA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굳이 강조할 것도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

금 동아시아에서는 아세안과 한국, 일본, 중국이 각각 FTA를 체결해서 아세안 +3 또는 아세안 +6의 지역적인 EPA, FTA의 필요성이라는 것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는 자리를 지역 경제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의 경제 발전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웃나라이자 경제적으로도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한일 양국에서 아직까지도 EPA, FTA가 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 뿐만 아니라 특히 비즈니스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한 미국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 매커니즘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 즉 수출, 투자, 소비에 대한 악영향이라는 형태로 급속도로 또 급격하게 한일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아시아 내 선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서 특히 전 세계의 성장 센터로서 부상하고 있는 인구 31억 명, GDP 규모로 말씀드리자면 11조 달러의 동아시아 경제권에서 한일 양국의 활력을 살려서 전 세계 경제를 견인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단순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 상호의 비교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일 EPA, FTA협상 재개는 이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번에 이 경제인회의에서는 한일의 투자 확대와 한일의 환경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 모두 한일 간 양국의 문제로써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저조한 세계 경제 속에서 무역과 투자를 어떻게 해서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지 또 이를 위해서 한일 양국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인가라는 시점에서 논의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일본 경제산업성과 JETRO가 주최한 한일 에너지 절약 환경 포럼에서는 한국 기업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즉 한국 기업이 플랜트 수주의 강점을 발휘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는 일본 기업이 기술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태양광 발전 기기를 한국 기업이 수주한 플랜트 시설에 설치하는 식으로 해서 한일 서로 윈윈의 관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한일 간 업종 기업 간에 연계, 협조라는 것이 향후에 무역, 투자 확대, 환경 에너지 절약의 대응과도 연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시회에서도 공통되는 문제 인식인데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일 양국의 기업끼리 서로 만나 한일 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관점에서 또 전 세계 규모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양국 기업이 더 밀접해져서 윈윈의 관계가 구축될 것을 기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찬스로, 기회로』라는 단어도 있지만 서로 경쟁 상대라는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서로 손과 손을 마주잡고 전 세계 시장을 향해서 함께 싸워나갔으면 합니다. 이익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계속 유지해갔으면 합니다. 제 41회 한일경제인회의가 결실 있는 성과를 낼 것을 기원하면서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니다. 그럼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4시 10분까지 Coffee Break를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ffee Break>

司會 : 다카이치 사나에 부대신님 감사함

2. 記調演說

司會 :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조연설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의 회의는 조석래 단장님과 이이지마 히데타네 단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趙錫來 團長 :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와 이이지마 회장님과 같이 속개를 하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순서에 따라서 한일 양국의 기조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측에서 기조연설자를 소개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이지마 회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飯島 英胤 團長 : 그럼 기조연설을 해 주실 이토 모토시게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토 선생님께서는 도쿄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시고 미국의 로체스터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쿄 대학 대학원의 연구과 교수를 역임하신 후 2006년부터 싱크탱크의 종합연구개발기구, 일본에서는 NIRA라고 합니다만 그곳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2007년부터는 도쿄 대학 대학원에 경제학 연구과 과장 또한 경제학부장으로도 취임을 하셔서 지금까지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일본에서는 매우 저명한 국제 경제 전문가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1) 日本側 基調演說

『向後の 世界經濟와 日本』

伊藤 元重

(ITO Motosige)

東京大學大學院 經濟

學研究科長 教授

NIRA(綜合研究開發

機構) 理事長



안녕하십니까, 이토입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향후 세계 경제와 일본에 대해서 약 30분 정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이야기를 한국에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만 한국의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일본의 경제, 사회는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인지 나쁜 방향으로 바뀔 것인지는 앞으로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아마도 양국 관계자 여러분들께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슬라이드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이번에 세계 금융 위기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리먼 브라더스의 파탄부터 시작이 된 AIG 혹은 씨티은행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금융 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토록 큰 세계적인 위기는 금융만이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융은 물론 이번 위기의 큰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 있는 세계 경제의 구조 변화라는 점을 우리가 잘 파악해 두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혹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진공업국, 한국을 포함해서입니다. 이 선진공업국에서 일제히 고령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베이비붐이 발생한 지 60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의 공통된 점은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 인구 피라미드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항아리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인류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즉, 잉여자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투자 은행의 한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세계 「이토 씨, 돈은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10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금융 전문가들은 다 아시겠지만 금리가 매우 싸고 낮고 그리고 거액의 자금이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주식, 채권만으로 운용을 해서는 이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금융 자본은 적어도 세 개의 투자처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는 브릭스라고 하는 신흥 공업국입니다. 한국과 같이 아직 젊은 경제국에도 마찬가지로 돈이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인도와 같은 나라들이 성장을 한 셈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돈이

투자된 것이 부동산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동유럽은 지금 부동산 거품 붕괴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부동산이 과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하나 크게 투자가 된 것이 석유, 식량과 같은 에너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신흥공업국과 부동산, 그리고 에너지, 자원 분야에 돈이 투자가 되었다는 것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계 경제 성장을 크게 끌어올렸습지만 모두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원화가 많이 절하가 되어서 좋은 나쁜 여러 가지 영향을 겪고 있을 것인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세계 금융 자본이 많이 투자된 것이 역류의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산업계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개 거품이 생기고 붕괴할 때마다 그 배경에는 대규모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세계적인 위기는 1929년에 월가의 주가 대폭락했을 때와 1930년대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와 비교를 하고는 합니다. 1921년에 월가의 주식 대폭락으로 이어진 그때 미국의 거품경제에 대해서 저희는 자동차 거품이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10년부터 20년에 걸쳐 미국에는 엄청난 기세로 자동차가 보급이 됩니다. 1910년에는 110만 대, 1920년에는 850만 대, 1929년에 월가가 주가 대폭락을 하기 직전에는 2300만 대, 미국 국내에만 이렇게 2300만 대 자동차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전기, 기계 등 20세기 기술혁신의 가장 주된 것이 바로 이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

를 성장시키게 된 셈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어느 한 부분은 거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대 대공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번은 어떨까요? 두말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지금은 디지털 혁명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의 기세로 일어났었습니다.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 영상과 같은 여러 가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보급한다거나 컴퓨터로 분석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유전자 역시 디지털 정보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됨으로써 세계 경제가 크게 바뀝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02년 이후 세계 경제를 매우 크게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이 때 세계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했던 미국 경제를 살펴보면 미국 경제 성장에 가장 크게 공헌했던 산업을 두 가지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금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유통업이었습니다. 금융업과 유통업, 이 두 가지의 공통되는 점은 방대한 정보를 순식간에 분석해서 전 세계에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유통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세계 최고의 소매점인 미국의 월마트에 의하면 1992년경에 미국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4,5년 전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2,3,4,5,6위 전부를 더한 것보다도 많은 양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매출을 냈습니다. 중국에서 2조엔의 상품을 사서 두 개의 인공위성을 사용하여 리얼타임으로 언제 어느 상자에 어떠한 상품이 도착하는지 전부 컨트롤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는 정보시스템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월마트에

서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지 제가 마침 가져왔으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폰입니다. 어디서 만드는지 아십니까? 중국 광둥성의 신천이라는 곳입니다. 만드는 회사 이름을 중국어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카타카나로 말씀드리자면 폭스콘이라는 회사입니다. 30년 전 대만의 소수의 사람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둥의 신천에 있는 공장에서 55만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HP, 컴퓨터, 텔컴퓨터, 애플컴퓨터, 소니바이오키퍼터, 게임기로는 닌텐도 wii DS,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Portable,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X-box, 휴대폰으로 보자면 Nokia의 휴대폰부터 모토로라 휴대폰, 그리고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이 i-pot이었습니다. 이는 대만의 기업이 중국에서 많은 종업원들을 거느려 미국과 유럽, 일본의 브랜드 제품을 대량으로 팔아 그것을 월마트같은 글로벌 컴퍼니가 전 세계에 이것을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리스크 혁신, 글로벌화가 만들어내는 매우 큰 공헌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의 속도로 성장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지만 역시 이것이 일종의 과열을 빚어낸 것입니다. 중국, 상하이, 두바이, 러시아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10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서울에 20층 이상의 건물이 몇 채나 있습니까? 나중에 한 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쿄에는 370개 건물이 있습니다. 상하이에선 60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상하이의 경우 모두 최근 20년 동안 건설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하이, 두바

이, 러시아, 인도에 있는 사람들 모두 최근 10년 간 특히 자신들의 사회가 변할 것이라는 매우 높은 기대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물자의 글로벌화를 이끌어 온 유통과 그리고 자금의 글로벌화를 이끌어 온 금융이라는 양방의 엔진으로 실은 2000년부터 2007년간의 8년 동안은 역사 이래의 성장률을 이어 온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시장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험한 법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유감이지만 지금 높은 산의 대가를 저희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회복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낙관적인 점을 말씀드리자면 세계적으로 지금 잉여자금이 돌고 있다는 것, 즉 투자 자금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기술, 테크놀로지가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한다는 것,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므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성가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작년 9월 15일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세계적인 금융위기라고 했습니다. 반년이 지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경제 위기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미국, 중국,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모두 다 다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안나카레리나라는 작품을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긴 장편이어서 끝까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소설 제일 첫 번째 부분이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다 비슷하게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

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반면 무엇이든 한 가지만 없어도 불행해집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고 돈이 있어서 행복해도 아이가 없으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있고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아이가 비행 청소년이 된다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돈도 있고 아이도 착하지만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돈도 있고 아이도 착하고 건강하지만 화제가 발생하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행 요인이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불행한 요인, 그리고 그 외의 불행 요인은 제각각의 요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후반부에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일본 경제에 관해 보자면 이것을 어떻게 개혁하면 좋을 것인가, 즉 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일본의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큰 과제이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불행한 요인은 무엇인가하면 소비자의 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택 론을 변제하지 못하여 600만 명이 연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가계가 돈을 지나치게 빌려 부동산 거품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미국의 또 하나의 문제는 금융이 매우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는 것, 이것은 다 아시겠지요? 씨티은행, 뱅쿠버, 아메리카, AIG 등 해지 펀드들이 모두 과잉 리스크를 다루었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장점은 무엇인가, 금융 부문이 매우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프로터 켄블, 구글, 보잉 혹은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바이오라든지 메디컬, 하이테크놀로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소비자, 가계부문은 매우 튼튼합니다. 일본의 소비자 부문은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쓰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매우 건전합니다. 물론 일부 작은 금융기관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메가뱅크를 비롯한 일본 금융기관은 세계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에도 매우 건전합니다. 다만 문제는 제조업, 특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자동차와 가전, 그리고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계산업이 어렵습니다. 유럽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아이슬란드는 파탄을 겪고 있으며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라는 국가의 약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 PIGS입니다만 이들 국가는 부동산 거품으로 금융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의 국제적인 리스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어려운 상황도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월가가 어렵다고 해도 그 외 많은 산업이 있습니다만 영국은 금융 상황이 어려울 경우 피쉬&칩스정도 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것을 재건하고자 할 때 어려운 이유는 유로로 통화를 통일했기 때문에 유럽 중앙 은행은 어디를 내다보고 정책을 세워야할 것인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측에서는 독일, 프랑스가 자신들의 국가에 많은 돈을 사용해서 구제할 능력과 뜻이 있을 것인지를 염려합니다. 유럽의 통화 통일로 경제를 통합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는 합니만 동시에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그리스가 같은 속도로 같은 통화권내에서 같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역사 이래 매우 어려운 위기에 직면 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매우 건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은 지금 절하되어서 약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통화 위기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직 여러분 모두 건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원화 약세를 이용해서 수출 부문에서 재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지금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은 정치 상황은 어렵습니다만 통화 위기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하면 역시 1997년 아시아 통화 위기의 교훈을 오늘 날 여전히 잘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여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만 이 이후의 세계 경제 경기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러한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아마도 회복이 시작되는 곳은 미국과 중국에서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과는 달리 일당독재 국가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본과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정치가가 선거에서 이길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별도의 문제지만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의 대통령은 어떠한 생각으로 정치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일당 독재 국가는 어떻게 안정되게 지킬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업자가 넘치고, 주식이 떨어지고, 서민들이 자산을 잃어가는 등 사회가 불안정해 지는 것은 피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빠른 속도로 개혁을 할 것입니다. 일본의 엔으로 환산하자면 55조원의 경기 부양책 대책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표한 곳이 바로 중국이며 도로, 철도, 주택, 인프라

를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때 일본에서는 2조엔의 정액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를 두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에 55조 엔의 거액이라니 굉장한데 하고 중국에 물어봤더니 55조엔이라는 돈은 중국 정부가 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 정부가 약 100조 엔 정도의 돈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 합치면 150조 엔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중국의 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에는 또 하나 숨겨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도 들어본 적은 있으실 것입니다만 최근 23년 간 중국의 최고 이코노미스트, 정치가들이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제 1단계 경제 발전에서 지금은 벗어나야 한다. 인해 전술로 방대한 노동자들이 노동집약적인 물건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파는 방식으로 성장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에서 농담처럼 미국이 중국에 독이 든 식품, 독성 화학 물질을 많이 수출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미국도 중국은 국채를 많이 지고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중국의 본심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수출을 많이 하여 외화를 벌어들여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1960년 대 일본, 혹은 1970년 대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공업 체제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중국은 아주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유럽, 일본과 다른 점은 문제가 매우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왜 단순한가, 금융 상황이 엉망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우 대담하게 금융을 투자해서 개혁한다면 순식간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몇 백만이나

되는 국민들이 주택부금의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계 부문의 부실 채권 문제는 매우 단순합니다. 부동산의 자산가치는 간단히 평가할 수 있고 회복하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정권이 제대로 돈을 들여서 회복할 마음만 있다면 미국 경제는 비교적 쉽게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는 미국 정부의 각오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좋은 방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이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이번의 전 세계 금융 위기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약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수출 거품이라고 불려왔던 것입니다. 자동차, 가전, 전기제품 등을 국내에서 너무나 많이 생산해서 너무나 많이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최근 5년 간 엔화 약세로 엔이 매우 싼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 있고 또 하나는 전 세계 수요가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크게 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미친 듯이 사들이는 것을 중단하고 환율이 안정된다면 이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수출 위기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두 가지 사항이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에서 좀 더 만들어야 한다는 것, 해외 시장을 바탕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기업, 특히 대형 기업은 글로벌전개를 필사적으로 전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소날이 파나소닉으로 왜 이름을 바꾸었는지, 이것은 역시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신흥 국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브랜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일본 국내에서 재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달 전에 도쿄에서 박형 TV를 사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상점에 가서 보니 파나소닉, 샤프, 소니, 히타치, 도시바, 미츠비시, 파이오니아 등 그 외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많으므로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옛날에 NAC, 후지쯔, 히타치, 도시바, 마츠시타, 혹은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엄청난 기세로 재편을 하지 않으면 글로벌 전개를 하지 못한다는, 국제 경제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을 진행할 경우 약 1000만명이라고 하는 국내 제조업 고용인 중에서 300만 명 정도가 실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는 해외로 나가고 일부는 재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수입니다. 내수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Demand side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약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본의 국민들은 평균 가처분 소득의 4배나 되는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2배나 됩니다. 독일 사람들은 은퇴를 하면 저축했던 돈을 쓰고 죽지만 일본은 은퇴를 해도 계속해서 소득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연금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장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수가 늘어나지 않고 따라서 경기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일본이 어떻게 사회 보장과 연금, 의료 제도를 정비할 해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수 확대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산업

과 복지를 육성할 것인가입니다. 일본은 자동차, 가전 등 기계 산업에 이어지는 성장 산업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장 산업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마도 환경분야라든지, 혹은 의류, 건강관련, 식량 등과 같은 분야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식량은 의외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통화 위기에서 엔으로 계산하여 가장 통화가 내려간 것은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였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일본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식량 공급 국가입니다. 일본의 기린 맥주라고 하는 유명한 맥주회사가 있는데 무엇을 했느냐 하면 호주의 최대 우유 업체와 최대 맥주회사인 라이오네이션을 매수하였습니다. 또 호주 최대 음료 버틀러인 코카콜라라는 회사를 매수하려 하였는데 이것은 실패했습니다만 그 돈을 이용해서 필리핀의 유력한 맥주 회사인 산미구엘을 매수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실은 호주, 뉴질랜드의 자원, 식량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호주는 자유무역경쟁에 있어서도 매우 열심인 국가입니다. 만일 이대로 간다면 일본의 기업은 나중에 호주에서 식량을 사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호주라는 곳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보, 유통, 판매하고 또한 종합적으로 호주라고 하는 시장에서 인정되는 식품의 업체가 되는 것이 매우 유력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아시아의 막대한 시장에 있습니다. 중국도 동남아시아도 앞으로 인구,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식량은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

가들에게는 다행히도 일본 식품의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안전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연계되는 형태로 내수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내수 산업을 일본의 예로 말씀드리자면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을 위한, 일본 국내 산업에서만 그쳐서는 안됩니다. 아시아 내에서 식량과 환경, 또는 고령자 비즈니스, 의료 등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도 제조업의 기술이라든지 또는 고도의 경제적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 위기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서 변혁을 할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趙錫來 團長 : 이토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간다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국 측에서 조환익 코트라 사장님께서 기조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조환익 사장님께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 정부의 산업자원부 차관으로 지내시다가 2007년 수출보험공사 사장을 역임하시고 2008년부터 현직인 코트라 사장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조환익 사장님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2) 韓國側 基調演說

『韓日 經濟協力の 創造的 再構築』

趙 煥 益

KOTRA 社長



안녕하십니까, 조환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님,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하야시 야스오 JETRO 이사장님, 이이지마 히데타케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님, 그리고 한일 양국의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제41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의 민간 경제계를 대표하는 회의로서, 지난 40여년 간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과 우호증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유례없는 경제위기에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자리에서 최근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한일 양국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저의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실물경제부문에서 극심한 소비부진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전 세계 많은 나라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한일 양국 경제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양국 모두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수요 위축으로 수출도 전년에 비해 급감 하였습니다. 올해 3월까지의 수출실적을 보면 한국이 전년 동기대비 24.5% 감소하였고 일본은 엔고현상까지 겹치면서 더 큰 폭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

해 한일 양국 정부나 기업은 모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재정지출 확대,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위기 극복을 도모하고 있고, 일본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인력감축, 사업구조 재편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아가면서 주가 등 금융지표들이 호전되고 있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물부문은 가시적인 회복 상태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수요가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에게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아시아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회복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외환보유액의 64%에 달하는 3조 달러의 풍부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고 부채도 적어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탄탄한 제조업에 기반을 둔 경제의 펀드멘털도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면 아시아 경제권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일본이 경제난국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혁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한국도 지난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증명된 위기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오늘의 위기를 잘 넘기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면, 세계 경제 질서 재편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재무장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경제권에서 한일 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나아가 세계 통상환경을 주

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이 시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국은 그 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일 양국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경제협력의 창조적 재구축을 위해 우선, 교역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영원한 숙제인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일본도 비용 감축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액은 327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부품소재 무역적자 때문인데, 부품소재 무역적자액이 전체 적자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교역불균형은 일방적인 요청이나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 경제적 이익이 맞물려야 가능합니다. 최근 경제여건 변화로 한일 양국 간 경제적 이익이 맞아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경기침체로 미국 및 유럽 글로벌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원가절감을 위해 한국산 부품소재에 대한 아웃소싱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싸기 때문이 아니라 품질과 성능도 좋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들도 그간 다소 폐쇄적이었고 여겨진 Supply Chain을 과감히 개방하여 한국산 부품소재를 구입함으로써 고비용 구조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일 양국 간 교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 기업들이 한국산 부품소재를 구입하고 한국은 일본 완제품 구입을 확대하는 새로운 교역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산 부품소재는 지난 수년간 집중적인 R&D 투자로 품질과 기술면에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최근 IBM, GE, 포드, 보잉 등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산 부품구매를 희망하고 있는 것은 한국산 제품의 품질과 정밀도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산 부품소재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OTRA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 바이어들의 한국산 부품소재에 대한 만족도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2006년 66.9점에서 2008년 82.4점으로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최근 하락된 원화 가치와 상승한 엔화 가치로 인해 한국산 부품소재의 가격 매력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한국산 부품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도요타 및 소니와 철강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본의 유력 자동차 기업은 올 가을에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아웃소싱하기 위해 한국 부품업체들과 상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산 부품소재는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이를 사용해 만든 일본 제품의 경쟁력과 기업의 수익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KINTEX 전시장에서 일본기업의 한국산 부품소재 아웃소싱 확대를 위한 '일본 부품소재 조달공급 전시회'가 KOTRA-JETRO 공동으로 개최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일본 정부와 JETRO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OTRA는 이러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확대 발전시켜, 한일 교역구조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JETRO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기업들이 한국산 부품소재 구입을 확대함과 동시에 한국은 우수한 일본 완

제품 구입을 늘려야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성능과 디자인을 갖춘 일본 제품은 한국 제품으로 하여금 환율 효과에 안주하지 않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는 동기 부여가 될 것입니다. 만일 한국 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있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KOTRA는 JETRO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 양국간의 투자패턴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일본 기업의 해외투자 방식은 주로 해외에서 범용부품을 생산하여 다시 일본으로 가져와 완제품을 생산하는 형태였습니다. 기술유출을 우려하여 핵심공정은 모두 일본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일본기업들은 글로벌 경기침체, 엔고 등에 따른 수출 감소, 주력품목의 가격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핵심 생산 체제까지도 과감한 아웃소싱 가능성을 타진하고, 보다 고부가가치 분야인 기획, R&D, 마케팅, A/S 등에 주력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미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기업들은 최근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달라진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공정을 해외로 이전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현지에서 판매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으로 투자방식을 전환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환율변동에 덜 취약한 사업구조를 만들어 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샤프(SHARP)의 경영진이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은 일본 기업들의 이러한 해외투자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

을 갖고 있고 우수한 기술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한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은 아시아 국가들 중 최고 수준입니다. JETRO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투자 진출한 일본 기업들 중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80~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인도,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기업들의 한국으로의 공정이전은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고, 한국 기업들도 일본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들에게 최적의 투자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구미, 포항, 익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4곳에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도 일본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의 대일 투자방식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판매법인 위주의 투자패턴에서 벗어나, 지식기반 산업의 투자를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각 부문에서 IT 컨버전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식기반 산업의 대일 투자진출 확대는 일본의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의 IT 소프트웨어 분야의 중견기업들이 일본 진출을 시도하여 왔으나 현지 시스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IT 기업들이 현지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일본 투자유치 기관의 많은 협력을 바랍니다. KOTRA도 일본 내에 운영하고 있는 IT지원센터를 통해 한국 IT 기업들의 일본 투자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일본의 JETRO와 보다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한일 양국은 신성장 분야에서도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과거의 경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Global Alliance 체제를 구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기업들도 이제 서로 간 경쟁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신 성장 분야에서 Global Alliance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협력 등 특정분야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 기업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R&D, 생산, 마케팅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양국 재계단체는 가교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양국 간 Global Alliance 구축이 유망한 분야입니다. 한일 양국이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고 일본도 '저탄소 사회구현'을 신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일본은 세계 최고수준의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반도체, 정보통신 등 녹색 연관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 협력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 간 Global Alliance 구축을 위한 좋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KOTRA가 서울에서 개최한 "Green Hub Korea 2009" 행사에 일본 주요기업들이 참가하여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풍력발전 설비부품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인정하며 협력을 희망하였고 녹색분야 협력을 위해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12개 일본 녹색에너지 기업들도 한국에 기술과 설비를 수출하는 차원을 넘어

기술제휴나 공동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한일 양국 간 Global Alliance 구축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지금의 경제위기를 탈출해야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위기는 반드시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극복되었습니다. 한일 양국 기업도 전면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습니다. KOTRA에서는 한일 양국 기업의 Global Alliance 구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JETRO와 공동연구 등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산업 간,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여 한일 경제협력의 저변을 확충시켜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부품소재, IT, 환경 등 양국 간 상호 보완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Cross-border Cluster를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한일 산업계 내의 기술협력과 수평적 분업을 확대하고 나아가 공동 리서치 등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산업별 국경을 넘어서 산·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산업간 협력과 함께 지역 간 협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일 양국 도시 간 광역경제권 형성 등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모의 경제 실현 등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최근 부산과 후쿠오카, 두 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초광역경제권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산업 간, 지역 간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물류협력이 중요합니다. 상호간 물류의 흐름이 원활해야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양국 간 물류협력 확대를 위해, 저는 이 자리에서 한일 공동물류센터 설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특히, Just-In-Time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양국 간 부품소재 교역에 있어 공동 물류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정보화 사업에서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일본은 이재팬(e-Japan) 전략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별로 웹 기반의 행정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높은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구축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 등 한국 기업들도 이미 일본 지자체의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한일 양국의 IT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가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KOTRA에서는 일본 지자체의 전자정부 구축지원을 위해 올해 2/4분기 중에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에 참여경험이 있는 IT 업체들로 구성된 협력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이 분야에서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 기업의 글로벌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치러야 할 의무의 개념이기라기 보다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적으로 기업들의 '착한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이익창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되는 SRI 펀드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2006년 2조 3

천억 달러에서 올해는 4조 5천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을 넘어서 중요한 자금 조달원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 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한일 양국 기업 모두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국제표준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한일 양국기업이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도국 환경보전, 아동보호, 최빈국 지원 사업 등을 양국 재계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을 만들어 새로운 기업의 윤리기준과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ISO 26000 제정 과정에서 동양의 질제와 헌신 등 한일 양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의 경제단체 간에 지구촌에서 양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동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 기업인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일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양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기업인들께서 그동안 한일 경제협력 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한일 경제협력 모델을 바꾸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KOTRA도 앞장서겠습니다. JETRO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일 양국 기

업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일본 기업들의 해외진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1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이번 회의가 한일 양국의 경제위기 극복과 상호간 이익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趙錫來 團長 : 조환익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본 측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지마 회장님께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飯島 英胤 團長 : 그러면 일본 측 기조 연설을 해주실 JETRO의 하야시 야스오 이사장님께 금융 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와 한일 경제 연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야시 이사장님은 도쿄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시고 당시의 통상성에 들어가셔서 통상정책국장 등을 역임하신 후 2004년에 미쓰비시 물산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 후 2007년에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의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셔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야시 이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3) 日本側 基調演説
『金融危機 以後 世界經濟와
韓日經濟連繫』

林 康夫
(HAYASHI Yasuo)
JETRO 理事長



지금 소개 받은 하야시입니다. 조석래 회장님, 이이지마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일본무역진흥기구 부품소재전시회를 오늘 개최하게 된 점과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미국발 금융 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을 한국과 일본의 무역을 중심으로 돌아보고, 일본과 한국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생각해볼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2페이지를 보시면 앞서 이토 선생님과 조환익 사장님께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 먼저 서브프라임 문제를 2001년부터 2006년에 걸쳐 잠복·맹아기, 2007년 서브프라임 문제의 현재화,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문제에서 세계금융위기로의 발전이라는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 사정은 이미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슬라이드 2페이지는 이 정도로 생략하고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향후 미국 경제 동향을 보는데 있어서 과연 미

국 주택 가격이 언제 하락을 멈출 것인가 하나의 포인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2006년을 정점으로 하고 있고 2000년을 기준으로 보면 2.2배까지 오른 뒤 그 정점에서 2008년 12월까지의 하락률은 28.3% 정도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바닥까지 향하게 된다면 2010년 11월까지 12.4%가 더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정점에서 바닥까지의 하락률은 37.2%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 바닥이 언제가 될 것인지 통계에서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주택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금융업계가 더욱 혼란한 상황에 직면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주택 가격이 가능하다면 빨리 바닥을 치고 회복으로 돌아섰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언제가 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네 번째 슬라이드로 가면 2009년 세계 경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1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성장세는, 2008년에는 조금 하락세에 들어선 적은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높은 성장률을 볼 수 있었습니다. IMF, OECD, 세계 은행과 같은 주요기관의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2009년은 IMF에서는 -1%에서 0.5%성장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1.7%로 전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OECD는 좀 과거의 것입니다. 미국, 유럽 권, 일본은 모두가 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OECD예측에 따르면 한국은 2.7%의 플러스 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개도국인 중국, 인도 각각 6.3%, 4.3%성장할 것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에

는 세계 경제는 IMF가 1.5%에서 2.5%, 세계 은행에서는 2.3%로 회복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예측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봐주십시오. 각국 지역 정부에 의한 경기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융 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서 각 지역에서는 재빨리 경기 대책에 나서고 있는데 그 주된 것은 대부분이 가계 지원, 고용 대책, 소득세 감세, 주택 부금 감세라든지 생활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특정산업지원, 이 중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지원이라든지 주택, 건설,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공공투자 확대에 따른 실수요자극제, 공항, 항만, 고속도로 정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지원에서는 공적자금의 투입, 정부자본참가범위의 확대, 국유화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시장 혼란에 대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핵심이 미국발 금융시장 혼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는 문제입니다. 각국·지역의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단기 유동성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과 정책금리 인하와 같은 금융대책을 강구하는 것 외에도 각국 정부·금융감독당국이 일부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예금자보호를 위한 예금보증상한액을 올리는 등 경기대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와 국제기구에서도 국제수지상 위기에 빠진 국가에의 지원이라든지 단기유동성 용자제도의 도입, IMF가 6개국, 660억 달러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개도국을 위한 긴급 지원에서는 세계

은행이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의 용자를 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런던에서 개최된 금융 서밋에서는 아시아 개발은행의 증자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였고 앞으로 개발계 은행에 대한 증자, 용자 범위확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이 G7에서 G20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 선진국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일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메시지를 말한다면 세계 각국이 다양한 금융국제 협조, 지원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이야말로 한국과 일본 양국이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번째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호주의 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관세의 인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보호주의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쉽게 보호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세계 경제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보호주의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서로 저지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한일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가 궁지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이상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는 힘든 경험을 하였고 결코 이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 밖에 없었지만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로 한일양국에서도 협조해서 이러한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을 견제하고 저지해나가는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후반부터 아시아 각국에서는 수출도 감소세에 들어섰습니다. 일본, 한국, 아시아 각국에서는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아서 수출 감소폭이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9페이지에 나오듯이 특히 아시아 각국은 미국,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출이 성장해왔는데 미국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대미수출의존도가 3.3%전후로 추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중수출의존도는 2.5%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대 GDP 대미 수출의존도가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상승하고 있는데 2007년에는 9.7%였던 것입니다. 한국의 대미, 대중 수출의존도는 약 15%, 일본은 약 6%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후퇴에 따른 영향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일본과 한국은 상대적으로 기계제품의 수출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다른 국가에 비해 일본과 한국이 매우 기계, 제품의 수출 의존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해외 시장의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제품들이기도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만 그 결과 일본에서도 2사분기 연속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었습니다. 예년에는 흑자였습니다만 슬라이드 12를 보시면 한국의 무역 수지가 2008년에는 적자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들어서는 원화 약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출이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 감소로 인해서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별 무역수지 구조를 보면 한일

양국 모두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국 모두 아시아가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자원국인 중동 각국에 대해서는 큰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세 번째 메시지를 보시면 일본도 자원국에 대해서는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적자를 제 3국에서 양국이 협력을 해서 글로벌한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13에서는 세계 직접투자, M&A가 감소세에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단일 금융이 매우 긴박한 상황이므로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세계 직접투자, M&A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급속도로 증가세에 있었습니다만 2008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한편 일본의 해외투자는 2007년도에는 전년대비 약 50% 증가했습니다. 2008년에는 약 80%가 증가하는 기세로 증가세에 있었습니다. 2008년도 제 4사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나 증가했습니다. 15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배경에는 일본의 대외 M&A가 급증했다는 점에 있는데 2008년에는 63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아까 이 토션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만큼 해외에 대한 일본 기업의 생존을 건 투자와 전략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고 기업이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16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JETRO에서 조사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해외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일본 기업이 현재의 경기 침체와 엔화강세를 해외비즈니스를 강화, 확충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것을 이 조사를 통해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요점은 해외에서 기존 비즈니스를 확충하거나 신규 비즈니스 전개를 시작하는 기업들이 46%라

는 것입니다. 이는 해외에서의 신규 비즈니스 전개를 중지, 연기한다든지 기존 비즈니스의 사업규모를 축소한다는 내용의 여섯 번째 항목의 9.1%에 비교해보면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할 시 우려되는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의 신문 기자에게 이런 식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당연히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십 몇%의 기업이 해외 전개를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를 예상했습니다만 이십 몇 %의 기업이 해외에서의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다음 날 기사에 일제히 나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역시 일본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부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즉, 일본 기업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해외 전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나왔던 설명과도 부합되는 내용입니다만 17번 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앞으로 어디에서 확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설문조사로 나와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신흥시장 국가 중에서 판매, 생산, 연구개발의 기능별로 보더라도 역시 중국이 대상 국가로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상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번 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한국에 있는 일본계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을 보시면 앞서 JETRO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미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의 실적을 보면 동아시아 각국과 지역 중에서 비교적 양호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 간에는 무역·투자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상담회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엔화 강세, 원화 약세를 살려 일본 바이

어를 유치하는 상담회 등이 보이고 양국 간 활발한 상업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회 등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호응하는 일본 기업들도 많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제 2차, 3차 붐이 있는데 통화·경제 위기 직후와 2004년 이후 두 차례 정도 피크가 있었습니다. IMF위기 직후에는 파트너 한국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의 투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액정·자동차부품 등을 한국기업에 판매하는 것, 그리고 완성차·소매 등 한국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 등 한국시장을 위한 판매 목적의 투자가 매우 많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4번 째 메시지를 읽어볼 수가 있는데 원화 약세로 인해서 일본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정비를 통해서 가까운 미래에 제 3차 투자 붐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 측 대응에 따라서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일본의 대내 직접투자 동향입니다. 내수 진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청이 있기도 합니다만 저도 일본에 대한 대내 직접 투자에 대한 호소를 매우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이미 일본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자금을 회수하는 경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GDP대비 5%의 대내직접투자잔고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데 일본 닛코시티 신탁은행이 증권의 투자를 회수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행에 따르면 지금의 동향으로 보아 저희가 예상했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

다. 다음으로 22페이지를 보시면 동아시아 역내 비율입니다. 이미 ASEAN+6의 역내무역비율은 2007년도 43.8%로 상승하였고 APEC, 역내 무역 비율은 67.1%였습니다. 사실 상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품질경쟁면에서도 경제통합을 꼭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3번째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동아시아 경제연구센터, ERIA가 작년6월 정식으로 출범되었습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제도면에서 보완하기 위해서도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센터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책연구·정책제언을 행하는 국제적기관으로서 2008년 6월 3일에 정식 설립되었습니다. ERIA의 세 가지 목표인 경제통합의 심화, 발전격차의 축소, 지속적 경제 성장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추출하고 아세안 사무국을 중심으로 한국대외정책연구원, KIEP를 포함해서 각국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정책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는 동아시아 각국정상에 대해,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추진을 위해 정책제언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태국에서 회의가 개최되지 못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쨌든 아시아 경제 통합을 위해 각국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제언하기 위해 설립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24번째 슬라이드입니다. APEC을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싱가포르, 내년에는 일본, 2011년에는 미국이 의장국이 됩니다. 아시아 경제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에서는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이 부분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APEC을 기준으로 경제통합을 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근거로 지금 미국을 설득하고 있

는데 말씀드린바와 같이 십 수년정도 전에 EACT라는 컨셉을 미국의 반대로 한번 실패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상 경제통합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미국을 설득 하면서 신중하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2,3년 안에 포스트·보골 선언의 새로운 목표와 협력을 내세우고 APEC의 강력한 부흥을 기대하며 노력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을 발표하셔서 4대 강 개발, 철도정비, 신재생 에너지 개발, LED응용 등을 통해서 96만명의 고용창출을 한다고 말씀하셔서 국내의 경기 부양 대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 아시아 이니셔티브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녹색 경제 성장 벨트를 형성해서 이 지역에서 FTA를 추진하기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또한 G20금융 서밋에서는 한국은 영국, 브라질과 함께 공동의장국을 맡으셨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010년도 가입을 목표로 개도국 원조에 적극적으로 돌입하는 등 이명박 정권에 의한 적극적인 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를 보시면 최근의 한일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한 일간의 정기적인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에 나와 있듯이 한일간의 FTA, EPA협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심의관급으로 격상이 결정되어서 저희로서도 조기 재개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한일정상회담과 부품소재협력에 관한 내용인데 덕분에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는 정상 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모

로 노력하고 염려했습니다만 덕분에 이 분야에서의 한일 간 협력의 큰 진전이 기대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전시회와 사절단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한일 중소기업 CEO포럼도 개최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한일 양국간에 다양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한일기업 간 서로 노력한다면 제3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무역불균형문제는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만 한일 기업에 의한 제 3국 시장의 진출이라는 것이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3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철도, 발전, 에너지, 대형 플랜트, 인프라 프로젝트 등을 할 수 있고 프로젝트의 총액은 특정 1개사만으로도 100억 달러를 넘는 규모입니다. 여러 회사를 합치면 3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상사가 중심이 되고있습니다만 당연히 여기에는 메이커도 들어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서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제3국 시장에 대한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형식으로 한일 간의 협력, 협조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메시지는 제3국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해서 글로벌하게 수지를 개선해나가자는 것이며 앞으로 제 3국 시장에서의 한일 기업 간 협력이 기대됩니다. 저는 미츠이 물산에 근무할 당시 한국 기업과 철도, 파워 플랜트, 발전소, 건설 분야 등에서 다양한 협조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대 제3국 시장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환경 에너지 분야도 한일 간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2008년 4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국제적과제에 관한 협력에 대해서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일양국이 한일양국의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책임에 걸맞는 형식으로 실효성있는 2013년 이후의 틀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순환형사회의 구축을 위해서 Reduce, Reuse, Recycle이라는 3R에 관한 협력을 추진할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양국간의 협력을 더욱 더 추진하고 아시아 지역이나 지구 규모의 환경 문제에서의 대응에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절약, 환경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JETRO는 도야호 정상회담 직전인 작년 6월에 오사카에서 한일 에너지 절약·환경 포럼을 경제산업성, 한국 지식경제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환경비즈니스의 프론티어, 일한 비즈니스의 과제와 협력의 가능성을 테마로 한국에서는 지식경제부, 한국 에너지 경제연구원, 한국전력공사, 두산 중공업이 참가하여 기조강연과 패널 디스커션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있을 한일경제인회의에서도 환경에너지 절약 분야의 협력이 논의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비즈니스 교류가 발전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32페이지입니다. 한일의 공통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입니다. 주요국의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을 보면 일본은 1970년도에 7%, 1994년도에 14%로 비율이 두 배로 늘어나는 배화년수가 24년이었는데 10%였던 1985년부터 20%인 2007년을 보면 20년으로 단축되어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7년에 10%가 되었고 20%에 이를 것은 2026년일 것이라고 예측됩니다만 이 사이에 배화년수는 19년이며 다른 선진국

의 40년에서 60년과 비교해서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속도는 대단히 빠릅니다. 2050년이 되면 일본의 고령자인구는 35.2%, 한국은 38.2%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청년 1.3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한국의 보험사회연구원에 의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불경기에 의한 청년층의 취직 문제나 저출산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제활동 인구 예측을 보면 2050년까지 인도, 미국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반해 대부분의 국가가 2020년에는 감소로 전환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활동 인구는 점점 감소할 것입니다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6번째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만 에너지절약, 환경분야, 저출산고령화 등 머지않은 미래에 심각화될 공통 과제에 대해서도 한일이 함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토 선생님께서 앞서 내수 확대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각각 어떠한 식으로 내수 확대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관해 논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한중일 투자협정교섭 및 한중일 비즈니스 환경개선 조치·아젠다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아시아의 경제를 견인하는 한국, 일본, 중국 3국 사이에서의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은 각국 기업의 글로벌 전개에 있어서 대단히 밀접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중일투자협정교섭은 2007년 1월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협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3월에 협상을 개시해서 지금까지 다섯 차례 협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이 협상을 가속화시켜서 조기체결을 하도록 합의했습니다. 『한중일 비즈니스 환경개선 아젠다』에 의하면 2004년 11월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행동전략에 따라 정부 간 협의를 개시하고 4년 동안 11차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 5월 일중 잠정 합의후에 2008년 11월에는 한중일 3국간에서 조치·아젠다에 합의하고 2008년 12월 12일에 정식으로 공포된 바 있습니다. 향후 아젠다에 기재된 조치를 정부 간 협의를 통해서 사후 조치를 취하고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한중일의 투자협정이 조속히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한일 FTA, EPA의 체결 교섭은 심의관급으로 격상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빠른 시일내 협상 재개가 기대됩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 JETRO는 한국대외정책경제연구원(KIEP)과 중국국무원발전연구센터(DRC)와 함께 2008년 12월의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한중일 『행동계획』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한중일 FTA, EPA연구를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은 동아시아경제통합이라고 크게 주창합니다만 한일, 한중일의 FTA가 체결되지 않으면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은 완성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이 착실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 메시지인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력관계를 더욱 더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도 한일 FTA는 장차 중국도 포함해서 아시아 차원으로 확대시켜서 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FT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36페이지

입니다. 한일 간의 인적교류를 보면 2008년 일본인의 한국입국자수는 236만명에 달했으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중 35%로 1위입니다. 또한 한국인의 일본입국자수도 238명이며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 최고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일 간의 인적교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상하이 엑스포에 이어서 2012년 한국에서 여수박람회가 개최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인적교류가 더욱 증가될 것이 기대됩니다. 일본 정부는 2월 24일에 각의 결정을 내렸고 간사 부처로서는 경제산업성, 그리고 참가기관은 JETRO가 될 것을 정식으로 표명했습니다. 2006년 아이치 엑스포에서 사라고사, 상하이를 거쳐서 2012년에 여수 박람회가 다시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며 JETRO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일 양국은 아시아의 선진국으로서 WTO, APEC에서의 틀이라든지 기후변동문제에의 대응 등, 국제적 과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 위기 이후 어려운 세계경제정세 하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최대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한일 양국은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을 견제, 저지함과 동시에 경기 부양책으로서 에너지 절약·환경 분야, 인프라의 투자 등에 의한 내수확대와 국제적인 금융 정책에 관해 협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일양국의 공통과제인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을 생각해 보면 아시아와 함께 성장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도, 중국은 역동적인 성장 과정에 있으며 중산계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중동 등 신흥시장도 시야에 넣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제3국 시장에서의 한일 양국이 기존보다 더욱 더 협력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와 협력하면서 아시아 차원의 기업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국간의 일방적인 무역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아시아 차원의 무역,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미래에는 양국의 무역 흑자를 아시아를 위해서라도 활용해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통합을 추진해서 아시아와 하나가 된 지속적 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일 FTA, EPA 교섭을 빨리 재개해서 조속히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 41회를 맞이하는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오랫동안의 상호신뢰관계를 토대로 한일양국으로부터 『한일신시대구축』에 걸맞는 건설적인 제안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일경제인회의가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과 여러분의 사업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趙錫來 團長 : 하야시 이사장님, 아주 광범위한 분야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기조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經過報告

趙錫來 團長 : 계속해서 경과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일반경과보고와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보고가 있습니다. 먼저 양협회 활동과 관련된 일반 경과보고를 허남정 전무에게 부탁드립니다.

(1) 一般經過報告 (協會活動)

許 南 整
(社) 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안녕하십니까, 전무 이사 허남정입니다.

한일 양 사무국을 대표해서 지난 1년 동안 양국 경제협회가 실시한 경제협력 사업 및 제40회 한일경제인회의 합의사항과 관련한 사업추진내용 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0회 한일경제인회의가 2008년 5월 15일과 16일 이틀간에 걸쳐 300명의 양국 경제인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 치바현 우라야스시(千葉縣 浦安市)에서 개최되었습니다.

40회를 기념하여 양국 정상 축하 메시지의 발표가 있었으며, 한일경제인회의가 40년의 전통을 가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서 양국의 경제발전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경제발전과 우호증진에 기여하신 공로자 두 분께 특별 공로상을 증정하였습니다.

이번 제40회 한일 경제인 회의에서는 한일 기술경쟁력 강화와 경제체휴, 한일간 균형 있는 무역확대를 위한 양국 경제인들의 솔직하고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

다. 양국 경제인은 자원부족국가인 한일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술개발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한일간 균형 있는 무역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부품소재산업분야와 대한투자확대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부품소재산업분야에서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한일경제인회의와 같은 시기에 일본의 비즈니스미션이 내한하여 일한부품소재조달·공급전시회 개최와 더불어 공업단지 시찰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제10회 회의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만, 본건은 한국측 চে어맨으로부터 별도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일 청소년교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 및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양국의 고교생들이 참가하는 ‘한일고교생교류캠프’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12회에 걸쳐 1,107명의 고교생(한국 558명, 일본 549명)들이 참가하여 돈독한 우정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한일고교생교류캠프는 4박 5일 동안 합숙하면서 양국의 관광·문화에 대한 비즈니스 사업을 기획하고 발표회를 갖는 청소년 경제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제11회 캠프는 2008년 8월 동경에서, 제12회는 2009년 2월 서울에서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양국 정부에서 후원하는 교류캠프 활동을 통해, 양국의 고교생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공동 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동안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쌓으며 우정을 싹틔워 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만남이 횃수를 더해가는 만큼 양국 청소년 사이의 신뢰도 두터워지고 있으며, 캠프 참가를 계기로 『고교생캠프OB/OG회』가 구성되어 ‘한일

학생미래회의'를 통해 서로간의 우정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일본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래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총 78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2009년 1월, 한일 정상회담차 방한한 아소 타로(麻生 太郎) 일본총리는 양국 경제협회 주관으로 2004년부터 시작한 '한일 고교생교류 캠프' 참가자 25명과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장래 한일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리더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일경제협회 단독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일 및 한중일 지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한일 지역간 경제교류회의를 통해 관련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산업기술 협력, 비즈니스 매칭 지원, 전시회 상호파견, 기술자 연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 9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가 2008년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일본 카나자와시에서, 제 15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가 2008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일본 키타큐슈시에서, 그리고 제8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가 2008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한국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한일정상회담과 병행하여 개최된 한일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BSR)에서의 합의에 따라 『환경·에너지절약 기술자 전문연수』가 2008년 11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한국 환경관련 중소기업 10개사 10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5일간의 일정동안 일본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충실한 강연과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수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한경제협회 단독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일한경제 심포지엄이 2008년 10월, 한일 양국 경제계인사 14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래지향적 일한경제교류를 향해』라는 주제로 東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후카가와 유키오 와세다대학 교수의 진행으로 한국 IT전략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SJC 등으로부터 한일 양국의 투자환경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와 무역의 확대균형을 위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사·홍보활동 사업으로 회원사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로서 월간협회보 및 주보, 비정기 분석 리포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회원들이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강사를 초빙하여 강연과 의견교환을 실시하는 회원 간담회를 1988년부터 20년간 꾸준히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일 양국 산업기술협력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일 양국 간의 산업·기술 협력을 통해 대일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2년에 양국 정부 간의 합의로 설립된 산업기술협력재단은 양국 정부 그리고 관련 경제 단체 및 기업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가 속에 광범위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양국 재단은 공동으로 기술인재 육성, 기업경쟁력 향상, 지역간 산업협력, 비즈니스 매칭지원, 제1회 한일산업기술페어 개최 등 폭넓은 사업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일 양국 간의 산업협력은 한국 중견·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양국 산업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 부품소재 기업 간의 상호 보완을 위해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개발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반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趙錫來 團長 : 허남정 전무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작년 12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 1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 대해서 한국 측 চে어맨이신 한국무역협회 오영호 상근부회장께서 회의 개최 결과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오영호 부회장님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산업자원부 제 1차관으로 활동하셨고 금년 2월에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한국 측 চে어맨으로써 앞으로 역할을 수행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영호 চে어맨 부탁드립니다.

(2) 第10回 韓日新産業貿易會議 結果報告

吳 永 鎬

韓國貿易協會 常勤副
會長・韓國側 চে어맨



방금 소개받은 한국 무역협회 오영호입니다. 저는 금년 2월부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맡게 되어, 작년 12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1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습지만, 회의 결과에 대해 양국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일본에서 개최된 제40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일 간 무역·투자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환경에 대한 과제와 개선책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 승인받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오늘은 본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만, 내일 있을 제1세션에서는 제10회 회의에서 논의하였던 한일 양국의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개선 요망 사항을 중심으로 연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 양측에서 각각 제안할 예정으로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는 한국측 চে어맨을 대행하여 참석하신 고광석 前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등 기업 및 정부, 경제단체, 학계 관계자 33명이, 일본측에서는 아소 유타카(麻生 泰) চে어맨 (아소라파쥬시멘트 대표취체역 사장) 등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한일양국의 토픽으로서 세션1에서는 무역, 에너지와 환경에 대해서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 개선대책』과 일본의 『에너지와 환경 대응 방안과 사례』를 한국무역협회와 일본의 태평양시

먼트에서 각각 발표하고, 이어서 세션2에서는 한일 양국의 무역·투자활성화 방안과 문제해결을 위한 투자전문위원회 활동 결과의 중간발표 및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신승관 연구위원은 『대일 무역역조 개선대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일 무역역조 확대 이유로서 한국의 대일 수출 부진과 원자재·소비재 수입 증가, 대일 수입 유발적인 한국의 수출구조 그리고 일본 시장의 특성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품소재전용공단에 대한 전략적 기업 유치 추진(기술수준이 취약한 분야의 일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연구개발(R&D) 촉진 설비투자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 대일수출촉진 방안 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한편, 에너지 절약과 환경대응에 대해 주제 발표자로 나선 다마시게 다카미키(玉重 宇幹) 태평양시멘트(주) 부부장은 「일본 및 태평양시멘트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 대응」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일본 경단련의 환경자주행동계획 설명과 함께 각국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화 비교와 일본시멘트 업계의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재자원화 사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일 양국의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설치·운영한 양국의 투자전문위원회 활동 결과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일본측 전문위원회 주사인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다카다 노부아키 부장으로 부터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동향과 대한투자를 가로막는 장애요인, 그리고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평가 대한 활동의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JETRO서울센터 도모타케 나오키 부소장은 『주한 일본계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내에서의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사안별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요망하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으며, 김&장법률사무소로부터 대한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의 노사관계 현상 및 노동환경에 대한 설명과 SJC측의 대정부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측에서는 오태현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의 『대일 무역·투자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이라는 조사연구 결과를 통해서 한국기업의 대일투자 현황 설명과 일본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분석, 그리고 대일 무역 투자기업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한국 기업의 일본 시장진출에 따른 애로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일 양국 간 무역·투자활성화 및 촉진을 위해서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부터 애로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애로사항 우선해결 과제로 상호 규격·인증, 검사·통관, 일본 중앙 및 지방 정부조달 사업 참여 방안 등을 해결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발표된 한국 P기업의 대일투자 사례에서 대일투자의 어려움으로 부지 확보에 대한 정보 부족 건설회사 물색에 대한 어려움 동종업계의 견제 일본언론의 비판적 보도 등을 지적하고, 대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나친 경쟁의식 보다는 동일한 고객을 차별화하여 가치를 증진시키는 협력자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외국기업의 활동을 적극 소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여론을 선동하는 언론 보도의 자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기업간 M&A실태와 확대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산업

연구원 사공 목 연구위원은 한국 기업의 일본 기업 M&A 사례를 통한 일본 진출 가능성을 언급하고, 양국 간 M&A 활성화를 위한 협력 분위기 조성 및 관련제도의 통일화 모색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 자유토론에서는 한일 양국 간 신입 인턴십 사원교류 확대와 인재교류 확대의 필요성 한일 양국 간 자격 상호인증제 도입 환경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정의변경의 타력적 운용이 필요함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측 참가자는 해결 과제에 대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본 회의가 논의에 그치는 회의가 아닌 실천하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한 후, 冒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의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개선 요망 사항 등을 이번 제41회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 양국 정부에 제안하기로 하고, 폐회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제기된 내용 가운데 심층적 연구조사가 필요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테마를 선정하고, 제11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금년 11월 19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趙錫來 團長 : 오영호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드린 신산업무역회의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논의될 의제와 관련하여서 세션1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활동보고와 신산업무역회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지마 회장님께서 따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발표해주신 모든 여러분과 좋은 기조연설을 해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써 오

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司會 : 두 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단장님들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후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6시 40분부터는 한일 양국 경제협회와 서울 특별시가 공동 주최하는 리셉션이 크리스탈 볼룸 II, III에서 개최됩니다. 단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좋은 환담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럼 리셉션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환담을 나누실 수 있도록 입구 로비에 칵테일 바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제1세션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점심식사가 끝난 다음 1시 40분부터 제2세션, 그리고 폐회식 순으로 일정이 진행됩니다. 제1세션에서는 『한일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세션은 『한일 환경에너지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 곳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CEPTION 歡迎辭

- 吳世勳 서울市長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디를 가나 가장 큰 이슈가 경제인 요즘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를 대표하시는 여러분께서 세계 경제 위기와 한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이셨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무척 든든합니다. 30년 가까이 양국의 경제 협력과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양국의 수도인 서울과 도쿄도 자매도시로서 깊은 우정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다른 어디보다 친근한 도시, 서울의 매력을 충분히 경험하시고 언제든지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SESSION I

議題：『韓日 貿易・投資 活性化
方案』

司會【柳奉雨 (社)韓日經濟協會 事務局長・理事, 以下同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경제협회 유봉우 이사입니다. 먼저 제1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통역 수신기는 한국어가 1번, 일본어가 2번 채널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모드로 바꿔 주시거나 전원을 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1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단상에 계신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세션 회의 좌장을 맡아 주실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이십니다. 이경태 원장님께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셨고,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면서 OECD 대표부 대사로 활동하셨습니다. 2008년에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셨고, 현재는 현 정부의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주제발표를 해 주실 발표자분들이십니다. 먼저 한국측입니다. 김동수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관이십니다. 그리고 KOTRA Invest KOREA 정동수 단장이십니다. 이어서 일본측입니다. 아소라파츄시먼트 아소 유타카 사장님이십니다. 아소 사장님은 현재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으로서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일본측 চে어맨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아사히글라스의 후지노 다카시 집행임원경영기획실장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 진행을 이경태 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1) 座長 人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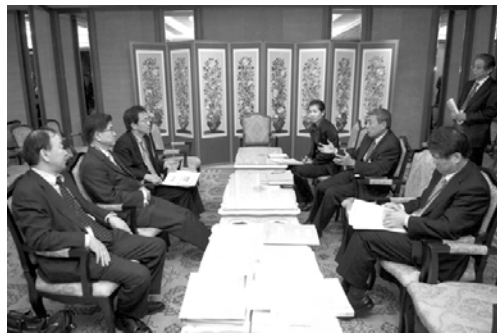
李 景 台
韓國貿易協會
國際貿易研究院 院長



안녕하십니까? 일본과 한국에서 참석하신 많은 경제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일본과 한국의 무역과 투자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약 3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걸쳐서 진지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의 사회를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2000년대 초에 일본과 한국이 FTA 공동 연구를 할 때 한국쪽의 대표로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측에서는 당시에 아지켄 소장으로 계셨던 야마자와 잇페이 교수께서 대표로 참석을 하셨고, 또 2000년대 초입니다만, 동아시아 푸전그룹에도 제가 참석을 해서 일본측 대표들과 상당히 많은 협의를 한 바도 있고, 또 일본과 중국·한국 3국간의 FTA 공동연구를 했는데, 거기에도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에서 제가 느낀 것은 일본과 한국 간의 무역과 투자 관계가, 물론 지금도 상당히 활발합니다만, 우리가 더 노력을 하면 훨씬 더 활발해질 수 있고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일본과 한국은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경제적인 관계에서는 가까우면서도 가까운 이웃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노력을 더 하면 일본과 한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의 이 회의는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네 분의 발표자가 계십니다. 한 분이 1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발표를 해 주시고, 네 분의 발표가 끝나고 나면 한 20분 정도 휴식을 갖겠습니다. 휴식을 갖고 나서 자유토론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발표자들의 발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해 주실 분은 한국 KOTRA에 Invest KOREA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Invest KOREA의 정동수 단장님께서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2) 韓國側 發表

『韓日 貿易・投資活性化 方案』

鄭 東 洙

KOTRA Invest

KOREA 團長



이경태 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 기업인 여러분들, 지난달 World Baseball Classic 때문에 즐거우셨죠? 한국도 즐거운 3월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싸워서 1등과 2등을, 야구의 본거지인 미국에서 이러한 Championship 게임을 하게 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3월에 LA에서, 야구 결승전도 LA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있었고, 바로 이어서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안도 미키 선수가, 2008년도에는 아사다 마오 선수가 우승을 했었죠, 올해는 우리 한국의 김연아 선수가 우승을 해서 한국에 많은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구나 여자 피겨스케이팅 부문에서는 저희들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만, 무역 분야에서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일 무역은 실제로 지난 40년 이상 지속적인 대일 무역적자가 발생되어 오고 있고, 해마다 그것이 늘어서 작년에는 드디어 300억을 초과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문제는, 어제 이이지마 회장님께서도 양국 간의 균형 잡힌 무역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LCD 산업을 보더라도 핵심부품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여 공장을 세우고, 거기서 생산한 부품을 한국 기업에 조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조금 있다 발표하실 아사히글라스의 사례가 그런 좋은 예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 것이죠.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본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 KOTRA의 조환익 사장님께서 일본 기업들의 한국 부품 수입이 양국 간에 win-win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앞으로 핵심 공정까지도 해외로 더 많이 이전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셨고, 또 이토 교수께서도 더 많이 해외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작년 4월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셨을 때 한일 정상은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다음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합의하였습니다. 한일 FTA 협의 재개, 한일 간 상호투자 확대, 부품소재분야 교류 확대, 에너지·환경 분야 교류 등의 경제협력 의제 추진 합의 등, 이러한 것들이 잘 이행이 되어서 양국 간의 교역이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본 기업들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1962년 이후에 2008년 말 현재까지 한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3,156개사가 되고, 총 금액은 신고 기준으로 226억이 되겠습니다. 분야를 보면 제조업에 1,408개사 126억불, 서비스업에 1,691개사 97억불

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의 유형을 보면 소위 M&A를 통한 투자가 31억불, 약 14%가 되겠고, 소위 Greenfield형 신규 투자가 195억불입니다. 연도별로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급격히 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두 번의 피크가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이 그래프에도 보시다시피 나타나고 있고, 세 번째 피크를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이미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2투자국입니다. 많은 좋은 기업들이 특별히 부품소재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주셔서 자동차·전자·화학 등 여러 분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하야시 JETRO 이사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을 보면 금융위기 영향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이 대응책으로 23%가 해외에서 기존 사업을 확충한다, 그리고 또 거의 비슷한 22.8%가 해외에서 신규 비즈니스 전개를 개시한다고 했습니다. 향후 3년 동안 해외에서 확대할 기능과 국가들을 보면 생산에서 한국은 8위, 기초연구개발에서 8위, 신제품 개발에서는 5위, 현지 시장용 사양 변경에서는 8위, 지역통괄기능에서는 10위, 물류 기능에서는 13위였습니다. 제가 이 리스트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이 상위권에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왜 한국이 일본 기업인들한테 8위에서 13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궁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R&D같은 경우에 태국이 한국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이걸 제가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수치인데, 물류도 그렇고, 지역통괄기능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 우선순위를 여러 분야에 있어서 8위가 아닌 3위 정도, 미국·중국이 한국에 앞서는 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 3위 정

도로 끌어올리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일본의 대외 M&A가 실질적으로 2005년 이후 대폭 늘고 있습니다. 2005년 약 80억불에서 2006년에는 200억불, 2008년에는 631억불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점에서의 문제는 이러한 M&A 활동의 대부분이 한국 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과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대외 M&A를 어떻게 하면 더 한국으로 많이 끌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얼마나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글로벌 국가경쟁력 리포트를 보시면 2008년도에 한국이 종합 스코어로는 13위, 그런데 혁신 부분, 이노베이션 부분만 보면 한국이 9위, 상당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보스턴 컨설팅그룹에서 발표한 이노베이션 인덱스를 보면 세계에서 GDP 규모로 상위 20위 나라만을 보았을 경우에는 한국이 제1위의 이노베이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 포브스지에서 최근에 발표한 세계적으로 산업과 직장, 커리어 면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좋은가 하는 면에서 한국이 상당히 상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사히글라스 대표께서 말씀을 해 주실 테지만, 왜 한국에 아사히글라스가 투자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이렇게 다섯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한국의 장점을 열거하자면 뛰어난 인적자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고교 졸업률은 거의 95%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대졸 학력 비율도 세계 4위, 41%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중 약 40%가 이공계열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수한 기술 인력이 양산되고 있고, 이 기술 인력이 특별히 일본 기업에 친화적인 노동시장이 됩니다. 일본어 가능 인재 확보가 용이하고,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일본어가 55.4%로 제일 많이 선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 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또한 많습니다. 해외 기업 취업 희망자 중에 제일 많은 29.9%, 거의 30%가 일본 기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그 다음입니다. 또 다른 요소를 보자면 한국에는 대형 구매 기업 및 내수시장이 있습니다. 반도체 · 조선 · 자동차 · 디스플레이 · 이동통신 이런 여러 부분에서 우리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일본 기업들의 부품을 사 줄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인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노사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우려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사분규의 발생 건수는 2004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친노동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노조활동이 좀 더 활발했었던 것 같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노사분규나 불법 파업의 숫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결성률 자체가 한국이 낮습니다. 일본보다도 낮고, 대만이나 싱가포르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지금은 10%가 조금 넘는 상태입니다. 이 결성률 또한 1988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기업들 중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 숫자는 아주 적습니다. 2005년 8건, 2006년 10건, 2007년 6건,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2건밖에 일본 기업에서 분규를 겪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3,000개가 넘는 기업이 들어와서 2건이라면, 1건도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것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걱정하신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협조를 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도 구미단지에는 도레이새한이나 아사히글라스같은 일본 기업들이 약 45개 사가 들어와 있고, 이번 달 초에 오이케 주한일본공사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일본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조세감면, 조세유예, 법인세 · 지방세 · 취득세 부분,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지원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D센터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R&D 인력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그동안 해 왔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JATCO와 도레이새한이 한국에서 R&D센터를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JATCO는 نيسان 계열 자동차 트랜스미션 전문회사인데, 한국에 약 200명이 넘는 R&D센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R&D 인력만 150명이 되고, 여기서 개발된 트랜스미션이 한국의 르노삼성자동차에 장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인들이 투자를 하는 데 중요한 건 수익성이죠. 일단 사업을 하시면 돈을 버셔야 되는데, 어제 하야시 이사장님 발표에도 나왔습니 다만, 한국이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래도 거의 제일 좋은 사업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나, 흑자를 낸 기업 분포가 제일 높고, 2007년도에는 한국에서 적자를 낸 기업이 없는 것

으로 나온 상황이고, 작년에는 상황이 많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4.3%만 적자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만 그나마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미국 상무성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1998년 이후에 빨간색 선이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투자한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이고, 밑에는 미국 기업들의 전 세계의 수익률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1998년 이후에 한국에서 투자한 기업들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기업들에 한해서는 최소한 한국에서 세계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도 그렇고,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면 영업 이익을 내고 있고,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국에 투자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시면 어디로 가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까요? 물론 여기 서울에도 JETRO 사무실이 있고 서울재팬클럽도 있지만, 제가 있는 KOTRA의 Invest KOREA로 오시면 열심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저희 Invest KOREA에서는 투자 모색 단계에서부터 투자 실행, 사후 지원까지 총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사무실에는 지식경제부·관세청·국세청·국토해양부 등 여러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즉석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투자실행 의지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프로젝트 매니저(PM)을 지정해서 일대일로 여러분들 기업의 투자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상호 협조해서 win-win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니-삼성의 합작회사인 S-LCD나 포스코-신일본제철, GS칼텍스-신일본석유 간의 제휴같이 양국간에 상호 협력하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접 투자 분야의 다양성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의 투자와 비교했을 때 일본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이나 EU 투자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계속 투자를 늘려야 하겠지만, 비제조업 분야·서비스 산업 분야에도 투자를 늘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토 교수께서도 금융 및 유통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더 적극적인 투자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어제 이윤호 장관과 다카이치 부대신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국의 기업들이 협조해서 제3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야시 이사장님께서도 어제 여러 예를 들어 주셨는데, 미쓰이 물산 한 회사의 예만 들어도 중동을 포함한 제3국에서의 협업 물량이 50억 불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투자로써 사모펀드나 창투사들을 통한 투자입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동안 일본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M&A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15%가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OECD 국가들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할 때 70% 이상이 M&A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위 Greenfield형 신규 투자 이외에 M&A를 통한 투자를 더 많이 기대해 봅니다. JAFCO나 JAIC, SOFTBANK사들은 창투사의 형태나 사모펀드를 통해 한국에 투자해서 좋은 성과들을 이미 올리

고 있습니다. 어제 조환익 KOTRA 사장께서 물류 분야 협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신항 배후단지에 BID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대우로지스틱스가 51%, 후쿠오카 운유가 49% 지분을 가진 합작회사인데, 중국 등 해외 수입 제품을 일시 보관 후에 한국과 일본 시장에 재분류하여 수출하거나 한국 신상품을 일시 보관 후 일본 및 제3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200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 분야로 신약 개발과 관련된 임상실험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국적 임상실험은 2002년 이후 2007년까지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회사들도 한국에서 임상실험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활동 중인 제3국 기업들의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이노베이션으로 유명한 3M은 미국 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이 세계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세 번째 나라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품과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 테스코의 경우에는 테스코 본사가 있는 영국 이외에 한국이 해외에서 매출을 가장 많이 올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그만큼 소비력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Crucell Biotech이라는 회사는 스위스에서 시작했다가 네덜란드 회사에 합병된 회사로 세계적으로 백신을 공급해서 수출을 하고 있고, UN기관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 회장님께 왜 중국으로 가지 않고 공장을 한국에 세웠는

냐고 물어 봤더니 『한국이 지적 재산을 훨씬 더 강하게 보호해 주기 때문에 한국으로 왔다, 그리고 좋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100%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매출이 2007년 매출보다 두 배나 늘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작년 수출액이 2억 불이 넘었습니다. Kimberly Clerk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토 이외에 글로벌 이노베이션 R&D센터를 지금 한국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한국의 R&D 능력을 보여 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아소 사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내용을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한국의 시장성과 사업 채산성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어 드린 것은 혹시라도 참고가 될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신재생 에너지, 환경·의료·건강 분야에 양국 기업들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하며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座長 : 네, 정동수 단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수 단장님께서 오늘 일본에서 오신 여러 기업인들에게 한국의 IR(Invest Relations)을 아주 성공적으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일본에서 오신 여러 기업인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한국에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오신 기업인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겠습니다만, 오

를 우리 정동수 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오신 아소 유타카 아소라파유시멘트 사장님의 발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신산업무역회의 투자전문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하신 내용을 발표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 日本側 發表

『對韓投資 活性化 (日本側 投資專門委員會 報告)』

麻生 泰
(ASO Yutaka)
麻生LAFARGE
CEMENT(株) 社長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 그럼 저는 대한
투자 활성화에 대한 투자전문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골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예전부터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또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여전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양국의 전략과 방침으로 개선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KOTRA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저는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오늘도 애로사항의 해소에 대한 부탁을 드릴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상호 인증 제도의 조기 도입을 통해서 한일 상호의 약점을 서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은 비즈니스의 공동 대책·대응을 통해서 조인트 벤처 합작의 어려움을 평소의 업무를 통해서 체험하는 가운데 양국의 기업들이 서로 연계·협조해서 새로운 시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 전개도 포함해서 한일 신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 상태를 살펴보면 한국에 진출한 기업

들에게 아직 현실적인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현재의 애로사항을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저는 일본 기업이 앞으로 아시아로 사업을 전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한일 간의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대한 직접 투자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대한 투자 국가나 지역은 일본·미국·EU가 3대 중심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은 일본이 최대의 투자 국가입니다. 일본이 미국과 견주는 투자 국가인데, 그 배경은 한국이 IT·전자분야 완성품의 전 세계적 생산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외자 유치 정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부품 납품처의 요청에 부응하는 형태로 부품소재기업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의 경향은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활동의 배경과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일 정상 회담을 계기로 상호 투자의 확대와 그 구체적인 시책으로써 일본 기업 전용 공업단지의 설치 등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회는 투자환경의 구축과 과제의 극복을 목적으로 여기에 임했습니다. 제도의 인프라는 2003년에 외자 도입 촉진의 일환으로 한일 투자 협정을 체결하고, 그 이후 3개의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산업계로서는 그 집대성으로서의 한일 FTA·EPA 교섭의 조기 재개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활동 분야인데 노동·지적 재산권 등의 애로사항, 자격의 상호 인증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노력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의 연계와 중소기업의 협력, 기준 인증 등에 대해서는 이번

에는 대상 외로 했습니다. 그럼 먼저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Global Standard에서 동떨어진 제도라든지 규제·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비관세 장벽이 저해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비용을 유인하는 고액의 퇴직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 기술의 유출도 우려됩니다. 세 번째로 보호적인 규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경영 풍토·기업 풍토의 특수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고학력 사회에서 수도권 쪽으로 인재를 집중된 결과 고실업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일 간의 경제협력도 양국 간 그리고 제3국 진출을 위한 협조, 앞에서 여러 가지 소개해 주셨던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만한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진출한 기업은 제조에 대한 풍토의 강화라든지, 노사 관계의 어려움·강경함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일본 기업의 관심은 한국의 시장성이라든지 사업 채산성에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외자 유치 정책은 오랜 기간에 걸쳐 공업 단지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Miss Matching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투자 촉진의 전제 조건입니다. 고비용 요인 해소를 통한 사업 채산 확보, 경영의 대전제가 되는 기술 노하우의 보호, 해외 송금 규제 등 효율화·원활화에 반하는 보호적인 규제는 투자 유치국으로서의 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활력 있는 경영 풍토 구축입니다.

한국의 청년 인재 활용을 통한 인재 교류 촉진과 한국의 기술력과 매니지먼트 파워를 활용해서 제3국을 포함한 한일 간의 협력을 더욱 더 추진해야 됩니다. 또 제조업을 기피하는 체제에서 탈바꿈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조,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에 대한 의식 계몽과 인재 육성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정리해 보면 민·관과 근로자를 포함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투자 유치를 위한 일관성 있는 활동을 통한 매력적인 투자 환경 구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각 분야별로 해결 방안·제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 문제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 양측에 있어서 오랫동안 큰 문제로 남아 있었고, 마이너스 이미지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노사 관계 개선, Global Standard의 달성, 이 두 가지를 조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조속한 해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 서로 연계·협조해서 고용과 노동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결 방법의 첫 번째는 일부 부당한 노동 운동에 대한 법의 엄격한 적용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파업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퇴직금의 사유별 지급입니다. 모든 퇴직자에게 일률적인 퇴직금 지급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면직이라든지 본인 사유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공업단지 등의 규제 완화 적용입니다. 먼저 노동과 관련된 관행·규제를 완화하도록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 중에서도 공업 단지 등에서 규제 완화를 적용해서 기존의 관행과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특히 신설하는 일본전용 공업단지 등에

대한 특별 조치를 요청합니다. 대상으로서는 퇴직금의 재검토 등 7개 항목을 거론했습니다. 네 번째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인데, 복수 조합 인정과 함께 2010년에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지적 재산권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제도적 운영에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을 참고로 하셔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또 국민의 지적 재산권 마인드의 제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서 기술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퇴직자에 대해서 영업 기밀 유출을 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관련 법규의 엄정한 운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일본에서는 지재 기본법, 연간 추진 계획, 전략 본부에 의한 부처 횡단적인 시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법규·계획·조직의 삼위일체적인 체제 구축이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 재산권 마인드를 제고하는 방법으로써 국가 전체적 차원,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런 시책을 전개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특허의 영어 출원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금융 분야인데, 사업의 원활화라든지 외국금융기관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해외 송금 규제 완화와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 범위의 철폐를 요청합니다. 이어서 기업 정의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 변경에 따라서 일본의 중소기업에 막대한 영향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대책을 계속적으로 보장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 관광 분야에서 도쿄 등 주요 도시에는 지하철역에 한글로 표시되어 있는데, 서울에도 일본

어를 같이 병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한일 투자 협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은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 타국 간의 협정을 포함해서 고수준의 협정을 유지해 나가야 하며 그러한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의 첫 번째로서는 현재의 예외 규정에서는 경쟁상 불리하기 때문에 타국에 뒤떨어지지 않는 대우를 상대국에게 부여하는 예외 없는 최혜국 대우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규제를 완화한 다음에 규제 강화를 금지하는 자유화 후퇴의 금지를 추가합니다. 세 번째로 인프라 자원 개발 등의 국가 프로젝트의 투자 리스크를 회피·경감하기 위해 국가와 투자자의 계약 준수 의무를 추가합니다. 네 번째로 투자 추진을 위해 현재의 부족한 부분의 개선 등에 대해 협의·실시하기 위한 협의체의 설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자격의 상호 인증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양국의 구조적인 요인, 즉 한국은 청년 고실업률 문제가 있고, 일본은 베이비 붐 부모 세대들의 퇴직과 저출산·노동력 감소에 의한 외국 고급 인재에 대한 수요 증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로 연계·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큼니다. 두 번째로 자격 상호 인증은 일부에서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인재 교류가 한정되어 있어 조금 더 추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국은 『IT 선진국가·관광입국』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인재를 육성하고, 교류함으로써 연계를 더욱 더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인재 교류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일본측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 젊은

층을 포함해서 일본 사람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파워가 약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쪽의 힘을 빌리는 것도 효과적인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졸자 이상의 높은 수준의 고용 시장 개방이 필요합니다. 또 일본측은 아시아 진출에 대해 한일 협력을 통한 약점 보완이라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키워포인트에 나와 있듯이 일본의 강점도 활용하고 한국의 강점도 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당분간은 청년층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대학의 학점 호환 제도라든지, 인재 교류를 촉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2009년에는 인재 교류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건이긴 합니다만, 일본은 조금 더 위기감을 갖고 이 시대에 대한 대응력을, 차기 세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현재의 리더들이 실시해 나가야 됩니다. 해결 방법으로서 첫 번째로 자격 상호 인증과 연수라는 두 가지 접근법을 쓸 수 있으며, 자격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IT에 중·상급자, 여행자격의 상호 인증을 통해서 인재 활용의 환경 구축과 또 취업 기회의 확대를 통해서 인재 교류의 활성화와 상호 이해를 더욱 더 제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인재의 연수를 실시해서 연수를 마친 자에 대해서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동향의 성과를 확인하면서 순차적으로 그 대상 자격을 확대해서 직장에서 그 교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방향인데, 첫 번째로 투자 활성화가 더욱 더 이루어지기 위해서 환경 개선과 업무의 시스템 구축·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당분간 한일 간의 미래 지향을 구현함으로써 인재 교류와 연계 양립을 조

속히 실현해서 양국 간의 약점을 상호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까운 미래, 한일 신시대의 도래를 위해서 인제 교류 확대와 직장 공유의 경험을 통해서 한일 양국에 있어서 아시아를 비롯하여 확대되고 성장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전개가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도 양국이 함께 배려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스킬·글로벌 대응력에 대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시아에서 양국 공동의 리더십 발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지향해서 양국에 의한 공동 활동 전개를 기대하면서 투자위원회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제언에 대해서는 요점에 대한 설명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위원회 주사인 다카다 부장이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座長 : 네, 아소 사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소 사장님의 발표는 대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부분 절반 정도는 일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국에 개선해 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약점을 보완하면서 강점을 합쳐서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그렇게 해야만 중장기적인 협력이 되지 않겠느냐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중장기적으로 서로가 win-win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어가다 보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의 해결이 뒤따라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한국 지식경제부 투자심의관계서 발표를 해 주시겠는데, 조금 전에 아소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셔서 김국장님이 발표하시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4) 韓國側 發表

『大韓民國의 外國人 投資環境 및 投資機會』

金 東 秀

知識經濟部

投資政策官



방금 소개 받은 지식경제부 투자심의관 김동수 국장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제가 총괄·담당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소 사장님께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상당히 위안을 얻었습니다. 당분간 제 일자리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업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해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외국인 투자환경과 기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것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경제 개요, 대한민국의 투자 환경 개선내용,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과 대한민국에서의 투자 기회, 마지막으로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IMF, UNCTAD 등 국제기구에서 금년도 세계 경제에 관련된 전망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2.9%가 하락한 0.5%에 그칠 전망이고, 이 중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은 -2%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로 보면 2007년도 1조 8천억 불에서 작년도 1조 4,500억 불, 금년에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15% 정도 감소한 1조 2,300억 불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활발했던 선진국의 외국인 투자도 큰 폭으로 감소해서 금년에는 7,800억 불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7년에 5%를 기록했습니다만, 작년에는 2.5% 성장에 그쳤고, 특히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IMF에서는 -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신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작년 외국인 투자는 2007년 대비 11% 정도 증가한 117억 불을 기록하였고, 금년에는 125억 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WEF, 세계은행, EIU 등의 유수기관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상당히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7~2008년도 세계 경쟁력 지수에서는 한국이 11위를 차지했고, 기업 경영면에서도 세계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지위는 OECD 평균과 비교해서도 한국 내 기업 경영 여건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EIU에서 발표하는 E-Business 순위에서도 한국은 1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기업지배구조는 폐쇄적인 결정구조에서 개방적인 결정구조로 전환되었고, 사외이사제와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기업 경영의 투명성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STANDARD&POOR'S, MOODY'S, FITCH 등 세계 유명 신용평가기관은 한국 경제의 Fundamentals을 감안해서 국가신용도를 대폭 상승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도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이 최근의 글로벌 경제 침체에 가장 취약하다고 주장을 하

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2,000억 불 이상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고, 한미, 한중 일 간 통화 스왑계약 체결을 통해서 만일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도 OECD 국가 평균 75%에 비해서 한국은 33%에 그치고 있어 경제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1년 전에 출범한 신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과감하게 철폐하고 있고, 현재 25%인 법인세도 향후 2년간 순차적으로 20%까지 낮춰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과거에 금융·보험·증권 등으로 구분되어 있던 자본시장이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서 통합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더 많은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히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5월 저희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소 사장님께서 언급하신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동안 해결한 분야를 말씀드리면 주로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신 지적 재산권 분야, 세무회계, 기술표준 분야를 크게 개선했고, 방금 전에 아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서울재팬클럽이라든지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EU 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가 새로운 과제들을 계속 발굴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계신 부분을 매우 잘 알

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인 노사문제는 과거 수년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발적인 일자리 나누기라든지 노사협약의 사측 위임 등의 노사협력 노력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한 지난 2월 23일에는 노·사·정 간 합의를 이끌어 내서 앞으로 최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노사 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반외자정서 또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자본에 대한 한국 국민의 호감도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새로 들어선 정부는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당히 개방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30% 대에 육박하고 있고, 특히 대표적인 기업들인 삼성전자·POSCO·LG 텔레콤 같은 기업들은 외국인 지분이 40%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투기업들도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1997년에는 2천여 개에 불과했습니다만, 금년 1월 현재 만6천 개로 약 8배나 증가할 정도로 외투기업들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업인 여러분, 한국의 투자 매력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한국이 아시아의 관문으로서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세계 인구의 2/3, 생산

의 1/5, 높은 경제 성장률을 구가하는 등 세계 최대의 시장이고, 생산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4시간 비행거리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50개 이상 밀집해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시면 주변의 큰 수요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 훌륭한 인적자원과 최상의 IT 및 R&D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중 84%가 대학에 입학하고 있고, 매년 10만 명 이상의 이공계 대학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IT 인프라의 경우는 한국에 도착하시는 즉시 비즈니스를 개시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이 밖에도 특허 생산성이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R&D 인프라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도 기업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담보할 수 있는 좋은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금 가장 활발하게 거대 경제권과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지난해 협상을 완료하고 양국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이며, EU와는 최종협상단계에 돌입했고, 일본·중국과도 FTA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을 통해 한국 경제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Global Standard 수준까지 제고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기업하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활동할 수 있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외국인 투자를 담당하다 보니 저에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지금 글로벌 수준의 주력 산업들을 많

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조선·자동차·디스플레이·철강 등 주력 산업들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의 성공을 보장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력 산업군을 배경으로 미래를 책임질 『성장엔진』도 저희가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신산업 분야 쪽도 여러분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부품소재 전용공단은 한일간의 단순한 무역 거래를 벗어나서 좀 심층적인 투자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추진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금년 3월까지 경상북도의 구미와 포항, 전라북도의 익산, 부산·진해자유구역 등 4개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41개 기업으로부터 9억3천만 불의 투자가 약속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5월에 도쿄와 오사카의 투자유치 로드쇼를 통해서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투자유치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유치실적을 감안해서 추가로 공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단 지정을 해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4개 이외에도 충남 천안, 대구 이쪽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과 내년에 걸쳐 전부 조성이 되어 내년까지 입주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품소재 전용공단은 글로벌 세트 기업들,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서 경영이나 생활환경도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업 입지로서는 매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입주할 경우의 인센티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토지·세제·금융·노사 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는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신뢰성 향상 R&D를 지원하는 사항, 전용펀드를 활용한 공동 투자하는 문제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부품소재 전용공단 입주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대외적인 가격변수인 환율도 여러분들의 투자비용을 상당히 낮춰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지금의 환율은 여러분들의 투자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표를 마치기 전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저희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이 부각이 돼서 양국 간에 가끔씩 문제가 대두되긴 합니다만, 양국의 유대를 훨씬 강화할 수 있는 분야는 경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해서 세계 시장에 함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座長 : 네, 김동수 국장님 감사합니다. 정동수 단장님 발표와 김동수 국장님의 발표는 한국의 투자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러한 노력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3개

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늘 제기된 문제까지 포함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 투자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분위기이고, 아까 아소 사장님은 그러나 아직도 문제가 좀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일본 기업들이 물론 많습시다만, 그 중에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아사히글라스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후지노 다카시 아사히글라스 기획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5) 日本側 發表

『韓日間 投資 擴大를 위해(事例發表)』

藤野 隆

(FUJINO Takashi)

旭硝子(株) 執行任員
經營企劃室長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 방금 소개받은 아
사히글라스에서 경영기획을 담당하고 있
는 후지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까지 여러분의 발표는 대단히 격조가 높
고 또 어려운 말씀도 많았는데, 앞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투자의 사례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좀 부드러운 내용을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사히글라스라는 저희 회사를 모
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워포인
트에 나와 있듯이 저희는 유리 회사입니
다. 유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
고 있으며, 유리의 원료가 되는 화학제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유리라고 해도 건
축용 판유리·자동차용 유리도 물론 있
고, 또 전자 디스플레이용 유리도 있습니
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에
서 특히 전자 디스플레이용 유리입니다.
이 디스플레이용 패널 유리로 한국에서
저희가 많은 신세를 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해외 전개입니다. 미국·유럽·아시아·
일본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와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자료
에 나와 있는 사업규모와 종업원 수로 사
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매출액, 영업이
익, 종업원 수를 보면 아시다시피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 매출·영업이익이 최근 들어 두드러지
게 증가하고 있는 곳이 한국입니다. 그러
면 한국의 디스플레이 사업 전개에 대해
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에 나와 있듯이 한국 국내에는 크게 5개
의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이 노란색 표
시되어 있는 부분이 한국전기초자인데,
이것은 TV의 브라운관용 유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또 빨간색 부분은 4개의 포
인트가 있는데, 이것이 FPD 유리, 즉 액
정용 유리, 혹은 플라스마 디스플레이용
의 유리를 만들고 있는 공장입니다. 여기
는 디스플레이 쪽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
문에 이 정도만 언급했지만, 자동차용 유
리를 제조하고 있는 공장도 물론 있습니
다. 그러면 액정용 유리, LCD 유리 기판
의 전 세계 수요와 한국에서의 위상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
듯이 해마다 전 세계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그래프의 빨간색 부분
이 한국입니다. 한국의 규모·비중이 최
근 들어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
재 LCD 유리·액정용 유리 기판의 최대
의 수요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LCD 유리에 대해서 대한
(對韓) 투자를 결정한 이유를 세 가지 말
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앞서
그래프에서 보여 드렸듯이 한국 국내의
LCD 패널 수요가 증가했고, 또 이를 이
용하는 고객들로부터 현지에서 생산해 달
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오랜 지인인 한국인 사업
파트너로부터 받은 투자 결정에 대한 조
언입니다. 오늘도 제 파트너 분이 여기
와 계시는데,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박
사장님이신데, 전에는 한국전기유리의
사장님이셨고 지금은 한진무역의 회장님
이십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신세를 졌습
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

신데, 현재 한진무역의 전무님이십니다. 김전무님께도 많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주로 2000년 이후의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박 사장님과 김전무님께는 저희가 많은 신세를 지고 있고, 이미 오랫동안 함께 사업을 하고 함께 회사를 일으키고, 실로 다양한 협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회사로서도 크게 감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인데, 충분한 검토와 진출을 결정하게 하는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단장님이 계시는 KOTRA와 지방 정부의 의견을 듣고 후보지를 직접 답사를 해서 자신감을 갖고 이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국 내 투자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거점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입지는 구미에 4개 거점이 있고, 오창에 1개 거점, 연기에 1개 거점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는 구미와 오창에 있습니다. 저희의 한국 내에서의 누계 투자액은 약 1,800억 엔에 달합니다. 저희의 국가별 투자액으로 봤을 때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한국 내 거점과 투자의 변천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듯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한국전기초자주식회사에 대한 투자인데, 2000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999년에 출자를 했고,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코리아오토글라스주식회사에 출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2003년에 한국테크노글라스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PDP용 유리 기판을 제

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 아사히글라스파인테크노코리아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LCD용 유리 기판을 제조하는 곳입니다. 2007년에 아사히PD글라스한국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여기서는 PDP용 유리 기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8년에 AGC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주식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여기서는 LCD용 유리 기판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섯 군데 거점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러한 입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투자액이 컸던 구미와 최근 들어서 투자를 시작한 오창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구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객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LG가 구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조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김동수 투자정책관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투자우대책이 뛰어나서, 장차 증설도 가능한 넓은 토지를 5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었습니다. 또 세금면에서도 몇 년 동안은 100% 감세, 또 그 이후에도 몇 % 감세되는 그러한 우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수출입 때 이용할 부산항과 가깝다는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재료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리의 원료는 크게 말씀드리면 흙과 소금인데, 이것을 해외로부터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부산항 같은 큰 항구가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출도 당연히 항구가 가까운 것이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다른 투자경험을 통해서 구미지역 특성을 파악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LCD와 PDP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 TV 브라운관용 유리를 1999년에 한국전기초자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한국 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서 일본인 직원들도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현지분들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미의 특성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오창같은 경우는 정단장님이 계시는 KOTRA Invest KOREA에서 지원 요청이 있었고, 또 강력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로부터도 진출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점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점, 이 오창쪽의 고객이라고 하면 삼성이 되겠습니다. 삼성과 가깝다는 이유도 여기서 꼽을 수 있겠고, 또 세 번째는 구미와는 별도로 향후의 사업 확대를 위해서 충분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미쪽에서도 광대한 부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 사업은 점점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대규모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우대책으로 5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어서 여기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미와도 비교적 가까워서 공장의 기능 분담 및 연계가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용 유리는 여러 스펙 이용 유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크기의 유리가 필요한데, 구미의 공장과 오창 공장이 서로 연계·협조하면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구미와의 거리도 걱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 투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게 장점이

5개, 단점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원책과 우대책입니다. 말씀을 앞에서 해 주셨듯이 부지의 무상 임대, 세금우대책 등입니다. 그리고 투자 완료 후의 After-care, KOTRA라든지 지방 정부도 포함해서 사후 조치도 잘 취해 주셨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만, 유리 공장을 설립하면 아무래도 공장이기 때문에 소방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리를 만들 때는 큰 용해로가 필요합니다. 철로 얘기하자면 용광로가 필요한 셈입니다. 그 안에 흙과 모래와 소금을 넣어서 이것을 뜨겁게 달구어서 녹여야 됩니다. 이 위에 스프링클러를 달게 되면, 그 가마가 불이 나서 거기에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게 되면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는데, 안타깝게도 그 지방 단위의 법에 의하면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 정부의 공무원들과 만나서 별 무리 없이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본과 같은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법치국가·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저희 회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다른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가치관이 크게 달라 고생도 했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과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근면하고 올바른 규율을 지닌 국민성과 높은 어학 수준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사례를 말씀 드리면, 설비를 만들거나 공장을 건설할 때는 1년이면 1년, 18개월이면 18개월에 완성하기로 공정표를 만듭니다. 아시아 이외의 국가에서는, 유럽도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그 공

정표대로 수행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 지연됩니다. 하지만 한국같은 경우는 그 공정표대로 진행됩니다. 이것이 좀 지연될 것 같으면 한국분들께서 잔업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공정에 맞게 일을 진행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근면하고 올바른 규율을 지닌 국민성, 반드시 기한에 맞추겠다는 가치관이 저희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감사하고, 또 어학 수준이 높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일본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또 공부에 대한 열정도 강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일본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일본쪽에서 가져온 기계를 보면 여러 가지 설명서가 있는데, 일본어 한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한국어로 다 번역할까 하는 논의도 있었지만, 한국어로 고치게 되면 이번에는 일본 사람이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 일본 사람들이 못 읽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어 표기 그대로 두었는데, 한국분들이 바로 그 한자를 배워서 이 기계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를 금방 익히시는 걸 보고 이런 점을 포함해서 어학 능력 수준이 참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일본과의 지리적 인접성입니다. 도쿄에서 서울까지 2시간 정도면 올 수 있습니다.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편 단점은, 최근에 느끼는 건데, 환율리스크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원화는 경제적인 변화에 아무래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은 좀 주의를 하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유대관계가 끈끈해서 특히 기술적인 기밀유지에 주의해야 됩니다. 즉, 선배와의 관계·친척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

요하고 끈끈합니다. 회사 내에서 어느 정보에 대해서는 절대 남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는 정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반드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많이 변하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이것은 그렇게 큰 단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일본과 거리적으로는 대단히 가깝지만 한국의 지방도시와 일본을 연결해 주는 직항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미와 도쿄는 취항편이 없습니다. 구미와 도쿄가 직항편으로 연결된다면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이러한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단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것은 구미의 LCD용 유리 제조 공장의 전경 사진입니다. 작년 3월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셔서 견학을 하셨는데, 쪽 둘러보시고 회사의 사장실을 보여 달라고 예정에 없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해드렸더니 사장실이 아주 작은 것을 보시고, 겸소하다며 칭찬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한두 달 동안 다른 데 가서서도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공장 부지가 10만평인데, 사장실은 5평밖에 안됐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경제적인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라고 여기저기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칭찬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회사가 매우 성공적으로 한국 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얻어 가면서 저희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座長 : 네, 후지노 실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떤 국가든지 장점만 있고 문제점은 전혀 없는 국가는 이 지구상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사히글라스의 경우에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하시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극복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하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네 분의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만, 알려드린 대로 20분 정도 커피 브레이크를 가진 후에 다시 모여서 자유로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Coffee Break>

(6) 自由討論

座長 : 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지금부터 약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오전에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또 그와 관련되는 보충적인 발표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넉넉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분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으로 나온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중에서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고,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이 회의가 끝날 때 공동성명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유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을 해 주시겠습니까?

韓圭範 아시아銀行證券센터 創立議長 : 저는 세계 경제 문제를 조직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제의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무역·투자 경제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아시아세계은행증권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제안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와 한국·일본 경제위기를 협력해서 극복하기 위해 설립된 아시아은행증권센터 창립의장 한규범입니다. 창립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한일에서 각 1명씩 단장님께서 추천을 해 주시고, 임시의장이 없을 것 같으면 당분간은 제가 임시의장을 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성이 되면 참가국은 한국과 일본 정부, 경제단체와 일반 시민이 다같이 참여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해법을 찾고, 성공적으로 아시아세계은행증권센터가 창립이

되면 우리는 중국·캐나다·미국·멕시코가 참여하는 범세계적인 아시아은행증권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1972년까지는 금본위주의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뒷받침을 해 주었지만, 1972년 골든 스탠다드가 폐지된 후에는 세계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를 각국의 GDP가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달러를 GDP가 충분히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 금융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우리 아시아가 중심이 돼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이 아시아은행증권센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충분히 토의해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座長 : 네, 감사합니다. 한규범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더 자세한 자료가 있겠지요?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고, 오늘이 토론 시간에 그 내용을 토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若井 修二(WAKAI Shuji) 韓國日研(株) 代表理事 : 한국닛켄(韓國日研)이라고 하는 100% 일본이 투자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와카이 슈지라고 합니다. KOTRA와 지식경제부의 김동수 국장님, 오늘 매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23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정부 관계자분들께 지금 바로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아소 사

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기업정의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잠시 나왔는데, 내용이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2조에 『중소기업의 정의』라는 항목이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의 시행령이 2005년 12월 27일에 개정되었는데,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독립성과 관련해서 우리 외국인 투자를 한 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투자한 회사의 의결권을 갖고 주식을 30%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총자산액이 5천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법률이 개정될 때인 2005년 12월 27일의 외화 환율은 당시 일본의 100엔이 한국 원화로 900원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의 투자회사, 모회사가 400억 엔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 당시의 한국의 원화로 3,500억 원 정도 환율 계산이 됩니다. 3월 말에 결산하는 회사가 많습디만, 그 당시에 일본 엔과 한국 원화 환율을 보면 1,400원 정도가 됩니다. 일본의 총자산 400억 엔은 1,400원의 환율로 계산하면 5,8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환율의 차이로 인해서 금년도 결산을 했을 경우에는 금년 3월 말 기준 모회사의 자산이 5,00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아니다, 법률상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걸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 그렇다면 저희 중소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한 회사일 경우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마음대로

결정한 해결 방법이긴 합니다만, 가능하다면 2005년 12월 27일 개정일 환율 900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 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환율에 따라서 금년에는 중소기업인데, 내년에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반대로 환율이 절상이 되면 다시 또 중소기업이 된다,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외국인 투자가로서는 한국에서 안심하고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정부 관계자분들이 부디 양해를 해 주셔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대해서는 저희는 물론 대찬성입니다만, 5,000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에 대한 평가 방법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급히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座長 : 와카이 선생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한국 정부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若井 修二(WAKAI Shuji) 韓國日研(株) 代表理事 : 공식적으로 SJC를 통해 이윤호 장관님께 애로사항으로 접수를 했습니다만, 법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현이 올바르게 않습니다. 지난번에 임채민 차관님과도 식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견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과 바로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4일에는 동력실의 조속실장님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3월 23일에 대한상공회의소의 손경식 회장님께서 저희 회사를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때도 애로사항으로 이 내용을 부탁을 드려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

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의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座長 : 감사합니다. 김동수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金東秀 知識經濟部 投資政策官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국에 투자를 하셔서 기업 경영을 하시는데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셔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법의 제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법을 해석하는 법제처라든가 여러 군데하고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해 봤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결이 되려면 저희가 제도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단기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 밑에 하위 행정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장관님, 차관님, 실장님과 다 만나셨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들으셨을 줄 압니다만, 그 분들도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도적으로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하시는데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사후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옴부즈만제도』라고 지금 정동수 단장님이 계시는 기관과 병렬적으로 설립한 기관인데,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거기에 『홈닥터』라고 그 쪽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제도적으로 푸는 것은 법을 개정하거나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행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은, 법해석에서 잘못된 거라든

가, 실무자가 규정을 잘못 운용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이미 해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모기업체가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받아서 그것을 해결한 적도 있고, 또 동탄 신도시 개발하면서 부담금 내는 거라든가 하는 것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닛켄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실무적으로까지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제가 받아온 자료를 보면 딱 부러지게 해석상의 해결을 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중소기업법이라든가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한 번 더 가서 실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은지, 아까 해결방안도 주셨잖습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투자할 때의 환율을 적용해 달라는.....

若井 修二(WAKAI Shuji) 韓國日研(株) 代表理事 : 죄송하지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투자할 때의 환율이 아니라 법 개정 그 날짜의 환율을 그대로 고정을 시키시고 5,000억이라는 한계를 유지하시든지, 아니면 환율이 올라가는 만큼 5,000억 × 같은 %를 올려서 그 숫자를 늘리시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느 쪽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법 자체를 건드려야 한다든지, 법이 잘못됐다는 말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고, 지금 중소기업지원책 같은, 작년 8월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고 나서 중소기업청에서 좋은 지원책이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 중소기업으로서は大환영입니다. 단지 환율에 따라서 5,000억이라는 한계액수가 왔다갔다 하다보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본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때 개정 때 환율에, 그 평가해야 되는 시점에

번 돈만큼 5,000억이라는 숫자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는 건 어떨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절대 투자한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金東秀 知識經濟部 投資政策官 : 저희가 2005년 12월 27일에 시행령을 개정을 해 가지고, 이게 아마 3년 동안 유예한 다음에 발효가 되는 그런 것이라, 아마 2009년부터 발효가 되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실무를 담당하는 곳에서 지금 사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 해석하는 쪽에도 알아보니까 긍정적인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이것은 지금 그런 쪽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파트에 있고, 직접 법을 운용하는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사장님께서 지금 건의하신 그런 내용들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座長 : 와카이 사장님께서 이윤호 장관, 임채민 차관, 조속실장을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는 다 한국 정부에서 숙지를 하고 있다고 짐작이 되는데, 저도 지금 얘기를 듣고 느낀 것은 실제 자산은 똑같은데 그냥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원화로 계산한 자산 금액이 올라가고 출자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주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국장은 그렇게 못하지만, 저는 책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법을 고치는 게 좋은 건지, 아

니면 법 해석을 바꾸면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저는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실제 대기업이 출자를 해서 중소기업을 만들어서 중소기업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스는 한국의 제도를 악용하는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법 해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싶은데, 여하튼 한국 정부 당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저도 강력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日本側 質問 : 저는 금융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한국에 온 것은 1976년입니다. 저는 원래 도쿄은행에 있었고,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또 리먼 브라더스의 도쿄지점도 만들었고, 2000년에 서울로 왔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제안인지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대단히 감사한 것은 한국에서는 일본어가 잘 통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의 Global Language는 역시 영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들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점은 영자신문을 일본의 1/4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인데, 이 점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닛케이 신문 같은 경우 너무 비싸서 영자신문을 살 수가 없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등도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훨씬 쌉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영어로 협상을 하게 되면, 물론 일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본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어를 잘

못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서 영어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좀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어나 한국어는 세계 공통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미 9년 동안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외국의 로펌에 진출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일본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일본은 그런 부분이 이미 충분히 발달해 있습니다. 대기업은 둘째 치고 중소기업들은 아직 계약에 대한 개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계약에 대한 개념이 철저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적인 측면에서 사업쪽에서는 워낙 활발한데, 금융은 구미의 공헌도가 높습니다. 일본의 금융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과 서로 협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座長 : 세 가지 제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어교육 강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의견에 대해서는 금융협력문제, 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 동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崔雨珏 (株)大成HI-TECH 代表理事 :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있는 대성하이텍을 운영하고 있는 최우각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정밀기계 관련 부품 및 조립품을 생산해서 주로 일본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본 시장을 개척할 때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 좋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 무역역조가 가장 현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를 많이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시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물건을 많이 파는 것도 무역역조 개선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일본 시장을 개척할 때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환경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보는 인식 자체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전 분야에서 한국 제품의 품질이 상당히 높아지고 가격경쟁력도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에 지경부 김동수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지경부 산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KINTEX에서 부품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많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일본에 나갈 때 KOTRA를 통해서 상담회나 전시회에서 일본 기업들과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계속 도쿄에서 이루어지다가 2005년부터인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KOTRA 직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 봤더니, 한국의 몇몇 업체들이 별 효과 없는 전시회에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 하고 아마 지경부에 항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취소된 걸로,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준이 높아진 우리의 부품들을 일본으로 많이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체들이 일본 기업들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많이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1년에 두 번 정도는 도쿄나 오사카 같은 큰 도시에서 기계·자동차·전기·전자 할 것 없이 대단위로 부품전시회를 한국에서가 아니라 일본에서 개최하는 게 무엇보다도 효과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국장님 한 번 심도 있게 KOTRA와 상의해서 검토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金東秀 知識經濟部 投資政策官 :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있어 전시회 등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가 큰 것으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추경 편성할 때도 해외시장 개척·전시회 나가는 분야에 많은 액수가 추경으로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경험 심화를 위해 부품소재 분야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東洙 KOTRA Invest KOREA 團長 : 추가로 이번 5월 18일과 20일, 도쿄와 오사카에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대규모는 아니지만, 투자유치설명회 및 부품소재전시회를 병행할 예정인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崔雨珏 (株)大成HI-TECH 代表理事 : 한 일재단에서도 전시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각 지방 도시에서 적은 규모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일본 기업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상담회나 전시회에 상당히 열심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큰 규모로 해야 일본 기업들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규모있게 전시회를 꾸미고, 일본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만 일본 기업들이 전시회에 참관하러 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희는 작년에 일본에 2,000만 불 이상 수출을 했습니다. 정밀기계부품을, 오히려 지금 수입하고 있는 것을 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기계업체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이런 상담회나 전시회를 통해 만난 기업들입니다. 이런 걸 좀 더 포괄적으로 모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座長 : 전시회를 작은 규모로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규모를 키워서 하는 것이 많은 바이어들을 오게 한다는 대단히 좋은 의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吳泰憲 慶熙Cyber大學校 日本學科 教授 : 네, 반갑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오태현이라고 합니다. 아소 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과 같이 저희 한국 측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대일본 무역투자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현지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를 지난 신산업무역회의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지금 한국의 기업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한일 양국의 무역불균형이라는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양국의 무역이 축소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확대균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바꿔 말해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수입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일본에 수출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일본 시장이 안고 있는 투자하기 부적합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시간상 전부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지적사항 중에서 한일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가

가능한 개선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양국 기업들이 이익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개선사항이 필요하면, 일방적으로 상대방 국가에게 제도나 규정 등을 바꾸라는 요구는 개선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역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양국 모두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단 시간 내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지금 테이블에 놓여있는 회의 자료의 139쪽과 140쪽에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일본의 중앙·지방정부의 경쟁 입찰 참여에 대한 요건을 다소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입찰보증금, 보험증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 기업들이 사실 그것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 보험회사들이 이를 발급하는 것을 꺼려하고,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중앙·지방정부의 입찰과 관련해서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특히 철강과 관련해서 일본의 철강회사 제품을 지정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자격과 규격에 대한 상호 인증입니다. 이것은 앞서 아소 사장님이 발표하신 내용과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이 이런 규격과 자격을 상호 인증함으로써 해서 해당 기업들은 수출입 대상 기업들을 쉽게 발굴할 수 있고, 새로운 제품개발을 위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접한 거리에 있는 나라, 한국과 일본이죠, 확실한 시장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에 대한 한

일 간의 상호 인증입니다. 이것은 양국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양국 모두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국의 관세청이 각각 시행하고 있는 AEO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호 인증해서 그 범위와 대상 기업에 들어가는 것들을 상호 협의 하에 발굴하고,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그런 안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이고 특정 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DVR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법 관련 규칙에 대해서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 부분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座長 : 오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측에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麻生 泰(ASO Yutaka) 麻生LAFARGE CEMENT(株) 社長 :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품과 인재 모두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아까 인재의 자격을 공동으로 한국의 IT라든지, 관광가이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교수님께서서는 제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죠. 이 문제도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座長 : 김국장님, 일본과 한국 사이에 상호인증협약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때 협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상호 인증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한일 FTA 협상을 하면 분명히 상호인증협약이 그 속에 포함이 돼 가지고 협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호인증협약(MRA) 부분만 따로 떼어 가지고 협상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진행이 별로 안 되고 있

는 것 같습니다. 정보 조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WTO 정보조달협정에 가입을 했고, 한국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가입을 하게 되면 외국 기업도 자국 국민과 똑같이 대우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국쪽에서 국제규범과의 관련성을 검토를 해서 또 다시 토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金周鎰 大韓赤十字社 經營合理化 推進委員 兼 幹事 : 경상북도에서 온 김주일입니다. 어제 한일 간에 한일 FTA·EPA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한일 간의 FTA 협정이 실무적으로 6차 회담까지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명분은 일본 농민이 반대해서 한일 FTA가 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농민은 FTA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일 간 FTA는 오히려 우리 농민에게 좋은 시장이 주어지는데, 일본 농민이 반대해서 FTA가 안 된다 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 간 FTA든 EPA든 추진하는 의미에서 일본 농민들의 입장이 왜 반대하는 쪽인지, 그런 걸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농민들이 왜 FTA를 반대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 그것을 타개함으로 인해서 FTA가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座長 :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일본 농민들이 반대하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한일 FTA를 진

행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민들의 반대는 한국에서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충분한 피해구제 대책, 또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 대책들을 제시를 해서 한미 FTA 협상도 체결되었고, 한·EU FTA 협상도 거의 체결 직전에 와 있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한국의 그런 경험을 일본쪽에서 좋은 사례로 인식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쪽에서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麻生 泰(ASO Yutaka) 麻生LAFARGE CEMENT(株) 社長 : 누군가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농민 문제라는 것은 여기에 전문가 분이 안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FTA를 추진하고 싶은 것은 일본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한국측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일본측의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농민 문제라는 것이 부상될 겁니다.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극복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FTA가 체결되지 않으면 그 어느 나라와도 잘 안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스타트라고나 할까요, 물론 싱가포르 같은 나라하고는 하고 있는데, 한국과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민 문제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계 쪽에서 외교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은 아무래도 가시화되고 표면화되기 쉬운 문제지만,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오늘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농민 문제가 일본에서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高錫英 E&Awell Co.,Ltd. 會長 : 저는 오랜 세월 새마을 운동에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일본에서 오신 선배님들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해 주시냐 하면, 이 회의가 경제인회의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좀 거시적인 얘기만 합니다.

일본의 중견·중소기업은 매우 힘든 상황인데 거의 54%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얘기만 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지금 일본은 엔고이기 때문에 함께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금을 모아서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은 사람들로 부터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이러한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남미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좌익이 대통령이 되고 있는데, 저변을 잘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일본도 한국도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에 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일본의 1/3 정도가 한국에 가서 삼계탕을 먹고, 20만 이상이 한국에 오고 있는데, 왜 일본에서 자유롭게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없느냐는 이런 얘기도 일본 사람들한테서 들려옵니다. 여러분도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음식은 한국과 일본은 공용권이라는 인식을 갖고 그 외에도 세금이라든지 거래 내용을 다 개선해서 자유롭게 전개를 시켜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주변에서 자주 들려 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FTA 문제는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본도 한국도 생활의 기본이 되는, 저변에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일 양국에서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座長 : 아직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선언문에 한일 FTA를 좀 더 확실히 추진하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짐작을 해 봅니다. FTA를 하면 물론 피해 보는 계층도 생기고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익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좀 극복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張世豊 韓國Lost-Wax(株) 代表理事 : 한국 로스트왁스 및 한국 소리마치의 장세 품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역역조가 300억 이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 비교를 잠깐 하겠습니다. 비석을 하나 봤다 하면 일본 사람들은 『누군지 이거 조각을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 글씨 누가 썼지, 추사가 썼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란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손대서 물건 만들면 『이건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더 심했었지만, 지금은 바뀐 것도 많습니다.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 사전을 찾으면 『구다라(くだら)』가 백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구다라나이(くだらない)』라고 하면 『별 볼일 없는 것, 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제가 아오키 사장님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하더라구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백제에

없는 것』하면 일본에서 생각할 때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나온 것도 구다라(くだら)에서 나온 것 못지않은 훌륭한 것을 만들 때가 왔습니다. 아까 제가 회사 이름 두 개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다 일본에서 투자한 합작회사입니다. 처음에 79년에 합작한 로스트왁스는 일본에서 그때 법이 49% 이상을 못하게 해서 한국이 51%, 일본이 49% 한 거고, 그 다음에는 87년에 했는데, 그것은 일본이 50%, 우리가 50%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100%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회사가 중국에 가서 일차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믿어 주세요.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두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회사입니다. 하나는 정밀도로 제일 가는 회사고, 하나는 소프트, 삼성증권이라든가 현대증권에서 그 회사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한국을 믿어 주시고 한국에 투자를 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座長 :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잘 정리하셔서 짧은 시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高杉 暢也(TAKASUGI Nobuya) (社)日韓經濟協會 アドバイザー 兼 金&張法律事務所 顧問 : 다카스기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후지제록스에 있다가 지금은 김&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SJC에서 업무를 맡아 왔었고, 오늘의 논의에 대해서 잠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세션에서는 서로 양측에 투자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측에서는 KOTRA Invest

KOREA의 정동수 단장님, 지식경제부의 김동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측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매력을 설명해 주신 것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본측의 아소 사장님과 후지노 실장님의 말씀은 글로벌한 눈이었고, 훌륭한 의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늘 모이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회의가 마흔 한 번째를 맞이했는데, 솔직히 오늘의 이야기는 대부분이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회의의 나아가야 할 방식이 역시 한국측의 말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노사 문제·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오태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투자를 서로가 축소가 아니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도 고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일경제인회의라고 하는 것이 41회째 열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무엇이 결정이 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석래 회장님, 이이지마 회장님께 상당히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한 것을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보할 수 있는 회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중에 공동성명에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논의가 나왔던 구체적인 내용, 한국에서 일본측에 대한 문제점 제기, 경쟁 입찰이라든지 자격의 상호 인증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것

들을 일본 정부에 촉구할 수 있는 형태로 결의사항 안에 들어가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 회의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논의만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논의를 들으면서 이만큼의 지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모였으니 이것을 구현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座長 : 다카스기 선생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은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마음속으로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모두를 대표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석래 회장님께서 한일경제인회의를 운영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한 두 분 정도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사회자 직권으로 일본측에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日本側 質問 : 저는 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에서 이쪽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아소 사장님께서 인재 교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은 오이타 벳푸에 있습니다. 한국과도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한국인 유학생이 저희 대학에 가장 많이 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 유학생들도 졸업 이후에는 일본 내에서 취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각 일본 기업에서 일본인과 완전히 똑같은 조건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일 간의 상호이해 증진으로도 연결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 기

업 중에서도 북미와 마찬가지로 인턴십 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정착되어 있습니다. 일본인 학생들 중에서도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유학생들과도 친밀한 교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한국측에서도 창구를 일원화해서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차세대 주인공들인 일본인 학생들의 인턴십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和地 孝(WACHI Takashi) テルモ(株) 代表取締役會長 : 일본의 의료기기 메이커 텔모의 회장 와치입니다. 한일 모두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의료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소 사장님께서 약점을 상호 보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양국의 국민성이라든지, 문화의 차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기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MRI나 CT-SCAN 이런 것들은 진단기기라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치료기기가 있습니다. 진단기기는 일본도 열심히 분발하고 있는데, 치료기기는 7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만들 수가 없나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왜 안 하나요 하면 일본의 섬나라 성격에서 본다면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는 터치를 하지 않으려는 뿌리 깊은 정신문화가 좀 있습니다. 이것이 의료기기 전문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여러 가지 요소기술을 융합하지 않으면 의료기기라는 것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와 관계가 없는 요소기술을 부탁하게 되면 『우리는 사시(社是)에 따라서 목숨과 관련된 것은 다루지 않겠다』라든지, 혹은 『설립자가 그렇게 정했다』라고 하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요소기술·핵심기술·부품 이런 것을 일본의 메이커와 함께 함으로써 치료기기의 첨단제품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도쿄의 부품전시장 말씀도 나왔는데, 의료기기 분야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도 한국도 모두 미국의 비싼 제품을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은 한국과 일본 모두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일 양국이 국민들에게 더 공헌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일 간에 서로 협조를 하면 상호 경쟁력의 강화에도 연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金東秀 知識經濟部 投資政策官 :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와치 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기 분야도 저희가 이번에 신성장 동력 중의 하나로 채택을 해서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를 할 그런 분야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본측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7) 座長 總括

座長 : 네, 감사합니다. 아마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더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한일경제인회의 제1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거의 3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진지하게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발표와 토론 내용을 다 일일이 요약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다 느꼈습니다만, 특히 투자문제에 있어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한국측과 한국의 잠재적인 투자국인 일본의 경제인 사이에는 아직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한국 정부도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왔고, 또 하고 있고,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사문제가 오늘 특히 많이 제기가 됐는데, 최근에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즈음해서 한국의 노사관계가 협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인 노동조합 조직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노사협력을 강조하는 온건한 조직이고, 다른 하나는 좀 강경한 조직인데, 최근에 와서 강경한 조직의 회사 단위의 노조들이 그 조직에서 탈퇴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분명히 법에 의한 파업이라든가, 법에 따른 노동운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일본 투자자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수준으로 하루아침에 가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점

들을 잘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해결할 사항도 있고, 또 어떤 것은 KOTRA라든가, 무역협회에서 해결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모였을 때는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점이 개선이 되었다는 부분도 같이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네 분께 감사를 드리고, 세 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 주시고 토론에 참가해 주신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1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司會 : 사무국에서 일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양국 단장단 및 좌장께서는 공동성명 심의 오찬회가 있겠습니다. 36층 벨뷰룸이 되겠습니다. 단원 여러분을 위해서는 크리스탈룸Ⅲ와 에메랄드룸에 오찬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는 1시 40분에 이 자리에서 속개가 됩니다. 자료는 이 자리에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찬회>

5. SESSION II

議題：『韓日 環境・에너지 協力 方案』

司會【柳奉雨 (社)韓日經濟協會 事務局
長・理事, 以下同一】: 지금부터 제2세션
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단상에 계신 분
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계신
분은 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이십니다. 박태주 원장님께서는 고려대
학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부
산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
득하셨습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부산
대학교 공과대학에 계시면서 국가지속가
능발전위원회 위원 겸 에너지산업 전문위
원회 간사로 활동해 오고 계십니다. 이어
서 오늘 주제발표를 해 주실 분들입니다.
먼저 한국측입니다. 팽정국 현대 자동차
사장 겸 한국그린비즈니스IT협회 회장님
이십니다. 다음은 POSCO 경영연구소 김
준한 소장님이십니다. 이어서 일본측입니
다. 사메시마 후미오 태평양시멘트 회장
님이십니다. 사메시마 후미오 회장님은
현재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으로 계십니다.
다음은 고노 마사키 도와 홀딩스 사장님
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태주 원장님
께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座長 人事

朴 泰 朱
韓國環境政策評價
研究院 院長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다. 오후 세션의 주제는『한국과 일본의 환경 및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입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위기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제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절약기술·청정에너지기술·자원순환기술 등 녹색기술에서 양대 위기의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년 가을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도 『저탄소사회』를 목표로 혁신적인 에너지기술 및 탄소저감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녹색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에너지효율기술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바이며, 한국도 철강 등 일부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원가절감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양국의 기업들이 그동안 이룩한 성과들을 되돌아보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러한 협력이 단순히 해당 기업의 경영 성과 개선을 넘어 우리 시대의 화두인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바로 발표로 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한일 양측에서 두 분씩 모두 네분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발표자로부터 각각 15분씩 발표를 듣고 난 후, 휴식 시간 없이 곧바로 자유토론 시간을 약 1시간 정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가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한국 그린비즈니스IT협회 회장인 팽정국 현대자동차 사장님께서 『IT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2) 韓國側 發表

『IT를 활용한 에너지 效率化 方案』

彭 正 國

現代自動車(株) 社長

韓國GREEN

BUSINESS IT協會

會長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현대자동차 사장 팽정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일경제인회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드릴 주제는 『IT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입니다.

2008년도에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커다랗게 화두가 되었던 것이 바로 『GREEN』입니다.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한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해 각국이 해야 될 일, 보시면 2030년까지 CO₂가 75%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한국과 일본만 비교해도 2005년도에 이미 한국이 CO₂ 배출량에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 차이는 점차 벌어지고 있고, 한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발표하고, 녹색경영·녹색성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에너지 수요도 계속 이렇게 나가면 2030년까지 82%를 증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CO₂를 절감하기 위한 활동을 범국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북극곰이 있습니다만, 북극곰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북극곰이 빙산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지구 온난화가 상당히 심각하고,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을 보시면 우리가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그 증가율은 가히 3%가 넘습니다. 국가 GDP당 에너지 소비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총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총 수입액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연평균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3%로 세계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세계 9위, 전체 에너지의 83%가 화석연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서 녹색경쟁력 지수가 최하위입니다. 그 반면에 일본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의 국가의 미래 비전을 보시면 지식경제부가 『그린IT전략』을 발표해서 IT의 녹색화·IT 활용 녹색성장 기반 구축 및 그린IT 기반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로 녹색정보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정보자원 그린화·녹색정부 구현·녹색사회 전환 촉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그린IT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개념은 에너지 절감·온실가스 배출 저감·자원이용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서 에너지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IT의 활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T 자체에 대한 GREEN화도 있겠지만, IT를 활용한 비즈니스의 GREEN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Green of IT』는 고효율 PC 서버, 그런 것들에 대한 친환경화, 그 다음에 그린 데이터 센터·가상화 기술에 대한 적용·IT 기기에 대한 리사이클링을 생각할 수 있겠고, 『Green by IT』는 그린 파트너십·공정의 자동화·친환경 건물관

리·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친환경 신기술 개발 및 산업 적용이 되겠습니다. Green by IT의 매커니즘을 보시면 산업현장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량의 가시화를 통해 에너지 절감 및 CO₂ 배출 부하를 저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CO₂를 측정하고 가시화하는 것, 에너지의 사용량을 측정하는 것과 측정한 것으로부터 생산량에 부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적기적소에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이클로 Green by IT를 추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Green by IT에 의한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물류혁신의 큰 기술로 보고 있는 RFID 기반의 생산 및 물류에 대한 협업입니다. 저희 현대자동차의 예를 보면, 협력업체와 RFID를 적용하여 실물과 정보의 가시화를 통해서 실시간 생산 정보 및 협력업체와 재고 수준까지도 같이 공유해서 전적으로 협업을 더 효율화시키는 데 RFID를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린 오피스 기반 구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글로벌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공간적 제약을 탈피해서 원격지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해외 전 사업장과의 대면 대화를 통해서 이동에 따른 공간적인 제약을 탈피할 수 있고, 따라서 재택근무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린 오피스의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그린 인텔리전트 빌딩이 되겠습니다. 빌딩 에너지의 관리 및 제어를 통해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하는, 예를 들어서 조명 같은 것도 IT를 잘 활용하면 에너지를 10% 이상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입니다. 도시의 교통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길을

안내해 주는 Intelligent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동차의 운영이 효율화되고, 에너지 소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그린 파트너십이라고 보겠습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그린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상생협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한 기업 간 협업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파트너십도 체결해서 비즈니스의 Green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기업과 협력업체와의 상생 부분은 1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2차·3차 협력업체까지 환경경영전략·청정생산체제·환경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모범사례를 협력사에 이전하고, 협력업체와 같이 협력 사업을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가적인 협력으로는 한국 그린비즈니스 IT협회와 일본 그린IT추진협의회가 지난 1월 14일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한 내용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녹색기술의 공동 개발과 그린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발굴해서 협력하고, 일본에서 개발된 그린테크놀로지를 한국에 도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또한 한국에서 개발된 그린테크놀로지를 일본에 도입될 수 있게 서로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마 가을에는 일본 그린IT 전시회 때 한국측에서 그린테크놀로지를 가진 업체들이 출품을 해서 한국의 그린테크놀로지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 이전이라도 항상 문호를 개방해서 한일 간의 그린테크놀로지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 드리려고 MOU를 맺었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그린IT를 통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에 걸쳐서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친환경적으로 변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 사업 영역의 그린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해서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녹색기술 공동개발·그린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국가 간 협력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座長 : 팽정국 사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정해진 시간보다 3분 정도 빨리 끝났기 때문에 뒤에 발표하시는 사메시마 후미오 사장님께서 조금 시간을 더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본측 첫 발표 순서입니다. 태평양시멘트 사메시마 후미오 회장님께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3) 日本側 發表

『地球環境問題에 대한 對應』

鮫島 章男

(SAMESHIMA Fumio)

太平洋시멘트(株) 會長



사메시마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 경단련의 환경안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지구환경문제의 실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을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대책, 교토의정서라는 것이 이미 발효가 되어서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중기적인 목표가 지금 UN을 중심으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 각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장기적인 개선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일 간의 협력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대략의 수치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구의 이산화탄소 온실화 가스 문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 자료의 세 번째 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에 그래프가 있는데, 1990년부터 2050년까지 지구에서 총 배출되는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밑에 그래프에 보면 교토의정서에 따른 감축의무, 각국의 종합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의 예인데,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 미국을 나타내는 그래프 위에 나와 있는 것이 개도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90년이 제일 왼쪽 끝에 나와

있습니다. 200억 톤 정도의 CO₂ 를 배출했는데, 2050년이 되면 560억 톤으로 배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지구상에 배출될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왼쪽에 원그래프가 있습니다. 원그래프의 오른쪽 윗부분을 보시면 29%라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2009년부터 발효가 돼서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삭감을 하려고 하는 교토의정서에 가맹한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밑에 미국이 20%, 그 외 기타가 51%가 되겠습니다. 교토의정서가 서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불과 30%밖에 되지 않는 비율이 교토의정서에 참여를 하고 있고, 국제적인 약속을 지금 이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토의정서가 이산화탄소를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단초가 된 것만은 사실이고, 그 점에서는 기여도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것과 교토의정서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원그래프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은 2%를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본은 4%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을 하게 될 개도국의 비율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개도국이 현재 중기 목표를 세울 때 자신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승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 것은 선진국의 개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료 2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온난화에 대한 책임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

가 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약 100년간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지역이 합해서 3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 일본은 3%, 인도는 5%, 중국이 8%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도국, 인도와 중국은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결코 선진국만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지금부터 교토의정서, 그리고 중기 목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경단련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번 슬라이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단련의 『환경자주행동계획』의 책정 경위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산업계에서 경단련이 중심이 되어서 34개 업종에 걸쳐서 1990년 대비 -6%를 업종별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만들어 낸 것이 환경자주행동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후속조치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08년의 후속조치의 결과가 자료 19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면 1990년부터 2007년까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단위는 세로가 제일 위쪽이 5억 5천만 톤, 1990년에 5억 1,500만 톤 정도였는데, 1997년에는 좀 많았었지만 해마다 서서히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6년에는 일단 목표 이하로까지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2007년도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장기간 멈춰 있는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계산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된 영향이 명확히 2007년도 수치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1990년도 대비로 말씀을 드리자면 1.3%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이 5억 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본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3억 톤입니다. 이 중에 5억 톤을 산업계에서 배출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비율로 따져 본다면 절반 이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산업계만이 어느 정도 달성을 한다고 일본은 이산화탄소 문제가 해결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무실·가게 등에서 종합적인 배출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7번 슬라이드를 봐 주십시오. 경단련의 자주행동계획의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목표는 90년도 수준 이하로 억제하도록 노력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34개 업종이 기준 연도의 산업에너지 전환 부분의 84%, 국내 전체 CO₂ 배출량의 45%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평가는 경단련 스스로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한 평가 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한 평가를 하도록 위탁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방지 조약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금년 12월까지 저희가 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 목표 설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번호 5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주요 배출국이 참가를 하지 않으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축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국의 중기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자료의 11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모두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11%~14% 정도, 이것은 2005년 대비가 되겠습니다만, 감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실현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2005년도 대비 14%, EU가 14%, 캐나다가 21%, 호주는 10%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내세우고, 교토의정서에서는 1990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1990년에서 2005년으로 기준년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할 때 한 가지 방법으로는 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감축 방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 기술에 있어서는 현재 일본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각국에 보급을 해 나간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방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협력적 부문별 감축 방식, 즉 업종별로 예를 들자면 전력·철강·시멘트 등 에너지 절약에 유효한 기술을 특정짓는다는지, 에너지 효율 수준의 벤치마킹 등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감축 가능성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에 감축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매우 뛰어난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력과 철강만으로도 일본이 에너지절약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전 세계 CO₂를 일본과 한국이 합해서, 연간 배출량이 일본이 12.4억 톤, 한국이 지금 4.6억 톤이니까, 17억 톤 정도의 배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감축을

피한다는 것이 바로 부문별 감축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APP(아시아태평양파트너십)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캐나다·미국·일본·한국·중국·인도·호주 이와 같은 7개 민·관이 하나가 되어서 업종별로 어떻게 감축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기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7개국만으로 전 세계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4%, 즉 과반수 이상이 지금 말씀드린 7개 국가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감축한다면, 이 나라들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파트너십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기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료의 6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왼쪽에 나와 있는 표는 2050년까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반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 작년 G8 서밋에서 정해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560억 톤 정도 되는 것을 280억 톤으로 줄이면 절반 정도가 줄고 현재 수준이 되겠는데, 그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밑에 있는 것이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감축시킨다는 것과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감축시키는 것,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냄으로써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존 기술의 보급을 통해서 40%, 혁신 기술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이 60%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노 사장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이러한 이산화탄소 배출·지구환경문제와 한 가지 더 자원의 재활용이 관계가 있습니다.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경단련이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많

습니다. 2008년도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1990년부터 일본의 추이를 계속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목표 이하 수준까지 달성을 했고,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저희가 목표치를 세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재활용 문제에 관해 다음의 28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시멘트 산업이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막대그래프를 보시면 이 막대그래프는 일본의 하수오니의 발생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밑에 있는 그래프가 시멘트 산업이 처리하고 있는 처분량입니다. 전체 발생량의 약 1/3을 시멘트 산업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구환경의 문제·리사이클의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간에 어떻게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와 관련해서 기업 활동·섬머타임의 도입,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이러한 부분에서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에 한일 경제계 정상에 의한 『한일비즈니스서밋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습니다. 거기서 원화강세에 대한 대책·협력, 국제적인 협조, 그리고 양국에서의 섬머타임의 도입 등에 관해 협력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한일 협력에 있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교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座長 : 사메시마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협약과 기업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김준한 POSCO경영연구소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4) 韓國側 發表

『氣候變化協約과 企業의 對應』

金 峻 漢

POSCO經營研究所

所長 / 代表理事



네, 방금 소개받은 POSCO경영연구소의 김준한입니다. 제4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큰 의제로서 양국 간의 환경에너지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본다는 주제를 채택한 것은 그만큼 환경에너지 문제가 국제적으로도, 또 특히 한일 양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협약과 기업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내용들은 어떤 주의·주장보다는 사실을 나누는 그러한 내용으로 발표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기후변화협약의 추진과정과 향후 전망을 먼저 말씀드린 이후에, 팽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해 한국 정부에서 발표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방향과 함께 지금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공청회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소개한 후 각국 주요 기업들의 기후변화협약·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노력들을 소개하고, 양국 간의 환경에너지 분야의 협력방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기후변화협약 추진과정에 대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 번 리마인드한다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그 과정을 보면 먼저 과학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온실가스의 관계에 대해서 규명을 해 나가는 『IPCC』라는 정부 간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그 관계를 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네 차례 방대한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1차 보고서는 1990년에 제출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파악을 했고, 이를 기초로 해서 1992년 환경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이 되었고, 1995년에는 2차 보고서에서 보다 구체적인 온실가스에 대한 규명과 함께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서가 제출이 된 후, 이를 기초로 해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3차 보고서에서는 그 위험성을 좀 더 강조해서 이 교토의정서를 좀 더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합의문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한 4차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는데, 이를 기초로 해서 지금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포스트교토체제, 2013년부터 어떻게 나아가 되겠느냐 하는 포스트교토체제 논의의 중요한 하나의 근거 자료로써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메시마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교토협약에서는 가입국이 배출하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포스트교토체제에서는 보다 많은 국가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많은 국가들 간에 합의를 이루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나라마다 처한 입장이 달라서 협상에서는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포스트교토체제는 어떻게 지금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가, 역시 사메시마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의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시스템을 『케벤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국가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할당을 하고, 거기에서 과부족분은 서로 교환을 하도록 하는 케벤트레이드 방식을 계속 해 나갈 것인가, 또는 소개된 바와 같이 『세트룰어프로치』라고 해서 산업별로 에너지 사용 원단위를 중심으로 이를 톨로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갈 것인가, 또는 아태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아시아태평양 7개 국가, APP7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여기에서 이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8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여기에서는 주로 기술적인 것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채택이 될 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교토의정서에서 논의되고 있는 케벤트레이드 방식이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조금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은 에너지 사용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을 하려면 크게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많이 쓰자, 이것이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 주체들·소비 분야·에너지 사용 분야에서 에너지 사용률을 높이자, 이것을 『Green Tra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을 하고 저장을 하는 그런 방식,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가 됩니다만, 『Innovative CO₂ Technology』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습니다.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역시 기후변화협약에서 추구하고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어떻게 한국적으로 잘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을 하면서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자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의 한 축입니다. 현재 에너지 자립도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한 5% 전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2030년까지 65%로 크게 제고를 하고, 녹색기술과 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아서 추진을 해 나가자,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사항이 기술입니다. 우리의 녹색 관련 기술 수준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제고를 시키자, 한국이 녹색국가임을 전 세계에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자, 이와 관련해서 환경성과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상당히 후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적어도 세계 20위 수준까지는 높이자는 비전하에서 핵심추진과제로서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삶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며, 국가 위상정립을 각각 매치를 시켜서 이렇게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다면, 역시 신재생에너지와 산업 공정에 있어서의 녹색화, 이산화탄소 혁신기술 등으로 집약이 될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신재생에너지를 육성을 하자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여건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역시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60%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 제고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을 현재 2% 남짓 수준에서 2030년까지

11%까지는 제고를 해 나가자 하는 목표를 지난해 제4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 Green Transformation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 즉 GDP당 에너지 사용량, 석유 기준으로 1,000불 GDP에 약 0.33톤 정도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3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철강 산업의 경우 1인당 철강 소비량이 연간 1톤이 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철강은 시멘트 등과 더불어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조선 등 많은 부분이 사실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제품을,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산업구조를 개편을 해 나가는 한편, 그 산업 내에서도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자는 것입니다. 에너지 다소비형 업종의 경우 우리나라는 원단위는 낮은 편입니다. 즉, 효율성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추가적으로 블랙스루형 기술을 적용해서 그것을 높여 나가자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₂ 혁신기술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O₂ 1톤을 포집을 해서 저장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일본에서는 내년에는 8,000엔 정도 되겠고, 한 5년 후에는 1/4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일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분야에 있어서의 공동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나라들도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역시 녹색계획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여러 가지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추진 목표와 정책들은 미국·EU·일본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사실 위기라는 것이 위험인 동시에 기회인 것처럼, 기후변화와 이산화탄소 감축과 관련해서 이것은 새로운 미래성장산업·동력산업이 될 수 있다는 기업의 인식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경제상황에 따라서 유가가 50불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에너지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모두가 충분히 예상하고 있고, 따라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것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앞선 기업들은 자발적 감축 등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 파이낸셜타임스 500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감축을 해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추진을 해 나가는 기업의 비중이 76%로 제보되었습니다. 각국은 또 기업별로도 기술개발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세계적으로 기업 부문에 있어서 기술개발에 700억 불 이상 투자를 했었고, 2007년도에는 1,000억 불을 상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사례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포스코의 경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포스코는 새로운 제철법으로 파이넥스공법을 상용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당히 감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와 함께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꾸준히 개발을 해 나가고, 결국은 이제까지 『탄소환원 제철법』에서, 탄소환원을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합니다만, 이것을 『수소환원 제철법』으로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한일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CO₂ 배출량은 한국은 2% 남짓, 일본은 4% 남짓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 순위가 일본이 5위, 한국이 10위가 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한일 양국 간에 협력의 여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이 협력방안의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포스트교토체제에 있어서 보다 양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공통분모를 추출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할 수 있도록 양국 간에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한국도 빠른 속도로 이 관련 기술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을 할 것은 역할 분담을 하고 공유를 할 것은 공유를 해서, 오늘 제41회 한일 경제인회의는 기본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봅니다만,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 발표를 마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座長 : 네, 김준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주제발표가 되겠습니다. 고노 마사키 도와 홀딩스 사장님께서 『아시아지역의 자원 순환형 사회구축을 지향하며』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5) 日本側 発表

『아시아지역의 자원 순환형 사회구축을 지향하며』

河野 正樹

(KOHNO Masaki)

Dowa Holdings Co.,
Ltd. 社長



도와 홀딩스의 고노입니다. 저는 사실은 한국을 방문한 것이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아시아지역의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을 지향하며』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은 아주 거창합니다만, 일개 기업이 비즈니스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의 한 사례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와 그룹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 홀딩스는 12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회사로, 원래는 도와 공업으로 비철 제련으로 시작했습니다. 플라자 합의에서 강력한 엔-달러 환율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주력했던 국내 구좌가 아니라 다운스트림 사업에 주력을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주력을 하면서 다섯 가지 핵심 사업을, 여기에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예전부터 있었던 제련, 지금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 환경·재활용·전자재료·금속가공사업·열처리사업 등 5개의 핵심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6년도에 도와 홀딩스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도와 공업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도와 홀딩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홀딩스로 바뀌면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ROA라는 경영지표를 저희가 채택했는데, 12%를 넘어서면서 최대 경상이익 500억 엔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 동시불황

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30% 삭감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다운스트림을 전개하면서 전기산업용 서비스산업의 매출이 매우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환경사업에 집중하면서 여러 가지 효율화·합리화를 포함해서 사업구조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순환형 사회로 나아가는 데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저희 도와의 사업으로 가장 새로운 분야가 밑에 초록색으로 나타낸 환경·재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 된 제련기술과 설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료의 원천을 기존의 자연적인 광석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재활용품, 저희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 냈는데, 그것들이 거래처에서 자동차·전기제품 등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재활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재활용을 통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순환형 사업을 형성하는 것을 지금 실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순환형 사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역시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본 국내에 64곳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1개 해외 지점이 있습니다. 환경재활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사실은 매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 25개 거점, 해외에 12개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M&A 등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도와의 순환형 사회의 핵심이 되고 있는 환경·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목차에 나와 있는데, 저희는 토탈

환경문제를 해결해가는 형태로 약 네 가지 정도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두 번째로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고, 세 번째는 그러한 가운데 재활용할 수 있는, 제련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뤘기 때문에 금속을 재활용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책, 혹은 컨설팅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분야가 되겠는데, 먼저 그 중에 첫 번째 폐기물 처리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본 최대의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 수집·운반을 하고 중간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종처리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은 일본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한국도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사 내에서 모든 것을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최대의 처리 능력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총 7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소각처리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금년 4월에 한 공장으로는 최대 규모인 로타리컬튼식의 소각로를 치바에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밑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1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체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앞에서 잠시 소개를 해 드렸지만, 계속 제가 최대의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일본 최대 규모의 관리형 최종 처리 시설을 또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의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총 배출량이 연간 4억 톤 정도입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처리가 어려운 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발생량 4억 톤 중에서 1,000만 톤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

다. 그 가운데 100만 톤 정도를 저희가 처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내에서 1,000만 톤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100만 톤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은 토양정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광산 제련에 첨단기술을 응용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 사용되는 설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VOC 같은 것을 현지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져가지 못하는 토양오염의 상황이기 때문에 광산 제련시설을 철분으로 분해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토양오염 정도를 조사·진단·정화에 이르기까지 자사가 일관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회사를 갖고 있는데, 미국의 URS 코퍼레이션과 기술제휴를 통해 토양조사라든지 진단·정화설계·전적을 하고 있는 최고 시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회사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토양정화 혹은 폐기물처리 등을 하는데 나오는 것, 혹은 직접적으로 전기·고철·금속 재활용을 하는 가운데 나오는 금속의 재활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폐촉매 중에서는 1kg당 허니컴 촉매에서 약 1g의 백금속류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제련을 통해서 회수합니다. 또는 자동차를 해체한 파쇄 잔재물 등을 소각을 해서 에너지로 회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금속제를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해체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코사카에 있는 제련소로 가져가서 금·은·동과 같은 것으로 분류해서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혹은 전자제품과 관련해서는 컴퓨터·휴대폰 등에서 나오는 폐기판이 있는데, 이 폐기판을 분류를 해서 전 처리를 잘 한

다음에 이것도 역시 제련소로 가지고 가서 이러한 금속 종류를 회수를 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와의 환경 관련 기술에 사용되는 기술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광산을 탐사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굴·채광·운반·선광·제련해서 지금을 만들어 내는 일련의 기술을, 그야말로 이것은 오래된 것이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 기술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의 환경사업은 먼저 광산, 혹은 선광·제련 등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슈퍼펀드법』이라고 하는 매우 엄격한 환경법이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때 당시 웨스트매니지먼트라는 유명한 환경 회사가 있었습니다만, 종합 환경 솔루션 사업 모델을 구축하지 않았느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뒤쳐져 있었던 일본의 환경대책시스템에 이것을 도입하자는 것이 하나의 모델로서 기여를 하게 된 셈입니다. 주변의 아시아 지역으로 이것을 확대하고 각국의 환경대책에 공헌하는 가운데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현재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소주시에 『소주 도와』를 2003년 12월에 설립했습니다. 중국의 환경은 법정비나 통제 등이 별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지 지방정부 혹은 민간 기업과의 연계 등에 있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새로운 도전 중의 다른 하나로써 일본의 아키타현의 코사카에 재활용을 위

한 새로운 제련 설비를 준공하였습니다. 작년 봄에 조업을 막 시작했습니다. 현재 연간 3만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연간 10~15만 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주석과 니켈 등을 새롭게 회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19개 원소로 이루어진 금속을 회수하는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련 설비를 새로이 설립한 것은 아시아 지역의 자원재활용에는 아무래도 이와 같은 제련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련 설비의 핵심시설로 이 시설을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새로운 도와의 도전이 되겠습니다. 아직 환경정화대응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동남아시아에 선진적인 회수시스템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Modern Asia Environmental Holdings Inc.』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회사를 금년 1월에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생각으로 인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소개를 해 드린 웨스트매니지먼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식을 갖고 있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 자금이 역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훌륭한 거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태국과 인도네시아·싱가포르에서 저희가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소각처리와 최종처리만을 이곳에서 합니다만, 여기서 금속재활용, 혹은 CDM 토양정화 같은 것도 포함시킬 계획이고,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지금 일본에서 추진해 왔던 종합 환경 사업을 전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도와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자원순환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1세기는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용 사회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환경의 세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도와 그룹은 한국을 비롯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아시아 국가들과 연계를 해서 국제적 재활용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자원 순환용 사회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도 힘차게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국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한국이 저희 재료를 수입해 주시는 고객입니다. 비철 제련에서는 상당한 경쟁 상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환경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토양정화 안건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군기지의 탄환 처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 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서 지금 더 이상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토양정화보존법』이라고 하는 것을 1995년에 기름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3년에 만들었는데, 법 제정에 있어서는 한국이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하고, 가전재활용·용기재활용 등 2003년도에 도입을 한 것들이 있고, 현재 서울에서 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뒤처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순환형 시스템을 전개하기 위해서나 동아시아 전체에 자원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선진국과

협조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점은 관·민, 혹은 민간 차원에서 향후 의견 교환의 장, 혹은 처리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6) 自由討論

座長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양측 주제발표를 마치고 바로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주제발표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오늘 주제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발언이나 질문·의견·코멘트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실 분은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金珍鉉 (株)曉星 顧問 : 고노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河野 正樹 Dowa Holdings Co., Ltd. 社長 : 수익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주민·정부, 특히 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사업으로 형성시킬 수 있는 형태로 만들지 않으면 사업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효율을 올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座長 : 혹시 일본에서 오신 분 중에 우리 한국 기업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 기술 개발의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

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특히 오늘 나오신 현대 자동차 팽사장님이나 포스코 경영연구소 김소장님은 이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高錫英 E&Awell Co.,Ltd. 會長 : 자꾸 질문을 여러 번 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연료 사용을 제어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돈이 많이 든단 말인데, 그런 돈이 없이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전기나 전력의 제공을 마이너스를 시키려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완전히 이것을 LED로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바꾸려는 것은 큰 기업에서 빨리 해야지, 우리 시민들은 그런 돈이 없습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간단한 예가 반도체 역할을 하는, 가장 싸고 가장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이 일에 300개 업체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다는 얘깁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서울시가 조명 같은 것을 완전히 바꾼다고 한다면 굉장히 돈이 듭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한라시그마아파트에서 그걸 진행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처음에 투자되는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은행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은행에서는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시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정부의 시책이라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일본분들이 와 계신데 일본이 확실히 지금 에너지 절감 문제가 발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늘 가 보면, 예를 들면 지금 현대 사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도쿄나 오사카에 가면 저녁에 차가 많이 안 움직입니다. 아마 현대 자동차 사장님은 차가 많이 움직여야 좋을 텐데, 우리처럼 이런 것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이런 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이 있나요?

金峻漢 POSCO經營研究所 所長 : 예, 결국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특』이라고 해서 에너지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서 기술 개발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히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역시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예컨대, 요즘 한참 국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연료전지 발전이라든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생산되는 발전 원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차차 경제성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라는 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태양광 발전은 1kw/h당 677원을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까 LED조명 말씀을 하셨는데, LED조명은 기존 현재의 조명 시스템보다 초기 투자비가 많게는 100배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진행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기업의 사육을 중심으로 해서

LED조명을 추진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점점 더 가게 부문으로 확산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정부 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 부분에, 한꺼번에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물론 재원을 확충을 해 나가면서 지금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座長 : 김소장님 감사합니다. 팡사장님, 자동차 쪽으로 해서 관계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彭正國 現代自動車(株) 社長 : 일본의 도요타가 1997년에 그린카를 선보였으니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도요타에 비하면 10년 이상 뒤졌는데, 올해 현대기아차도 그린카를 시장에 선보일 겁니다. 그린카라고 하면 결국 저희가 생각하는 하이브리드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이브리드카를 통해서 CO₂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차가 CO₂ 절감 활동을 도와주는 거지만, 현재로서 보면 수익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날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것을 차별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에 대응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의 화두가 각 경제대국이 GREEN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몰아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그 얘기가 좀 퇴색된 듯하지만, 곧 금융위기가 사라지면 GREEN이 다시 재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 자동차도 GREEN에 대한 준비를 차분히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座長 :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麻生 泰(ASO Yutaka) 麻生LAFARGE CEMENT(株) 社長 : 아소라파쥬시멘트의 아소입니다. 고노 사장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광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원에 들어있는 메탈이 비즈니스의 새로운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귀사에서 어떻게 이것이 수익원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여쭙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를 저희에게 제시해 주셨습지만, 그 경우에 처리기술을 일본에서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현지에서 광산을 한다든지 환경평가 관련해서 그것을 통과한 현지의 동업자와 연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 말고, 도와가 직접 한국에 와서 한다든지 하는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河野 正樹(KOHNO Masaki) Dowa Holdings Co., Ltd. 社長 : 도시광산에 대해서는 도호쿠대학의 만조 선생님께서 1980년에 이미 지적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최근 10년 정도, 특히 최근 5년 동안에 저희가 도호쿠대학의 교수님들과 시행정 당국, 저희가 아키타의 오다테라는 곳에서 그런 박스를 설치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를 좀 써 달라고 이렇게 많은 자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홍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의 연구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단계였습니다. 역시 소비자가 직접 일부러 가지고와 주셔서, 거기서는 저희가 그런 것들은 운반비를 드려서 하는 형태로 비용의 문

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휴대폰 등을 재활용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역시 그러한 것들을 사회의 전체 활동, 너무나 당연시되는 활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성으로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 처음으로 비즈니스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광산은 이름만 그럴싸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그런 시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제가 발표에서도 소개를 해 드렸습시다만, 저희가 『이러한 환경 관련된 사업이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낙후된 지역이 많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염도 얼른 중지시켜야 하고, 자원을 순환시켜야 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이미 나오고 있는 것은 전 세계가 이미 깨닫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남아시아 정부 당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위기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동남아시아에 전개를 하게 될 회사를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된 것이 하나의 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낙후된 것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 진출할 때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자사에서 진출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현지에서 하는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와 서로 많은 협조와 이해 하에 사업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과 연결을 해서 아시아

내에서 그렇게 낙후된 곳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업으로 연결시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저희는 그런 식으로 M&A를 해서 거점을 만든다든지, 혹은 직접 진출, 중국 같은 곳은 직접 진출해서 거점을 만드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座長 :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韓圭範 아시아銀行證券센터 創立議長 : 저는 아시아은행증권센터의 창립의장을 맡고 있는 한규범입니다. 환경에너지 산업은 무한대의 시장을 구축할 수 있지만,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한대의 투자와 그에 동반하는 리스크 부담이 아주 큼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많은 회의와 세미나들이 시장과 현상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설명하는 데 그쳤지만, 지금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은행증권센터를 정부와 민간과 경제단체가 협력을 해서 무한대의 자본을 형성하여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는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아시아은행증권센터 창립에 여러분들이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金峻漢 POSCO經營研究所 所長 :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투자비가 필요하지만, 이것을 어떤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서, 상당 부분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가격정책이라든가,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직접지원·간접지원·시장 기구에 의한 활성화, 이것을 함께 추진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7) 座長 總括

座長 :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세션에서 주제발표를 해 주신 분들과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팽정국 현대자동차 사장님께서 에너지·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IT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한일 양국이 IT강국임을 감안할 때 IT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귀중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사메시마 후미오 태평양시멘트 회장님께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일본 경단련에서 주도하고 있는 산업계의 온난화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전기산업연합회 등 8개 단체, 대체적으로 일본에서 CO₂ 배출량의 9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연합회의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CO₂를 감축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실제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는 CO₂ 감축에 참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에 많은 참고가 되는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발표자인 김준한 포스코경영연구소 소장님께서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을 짚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유사한 성장경험과 산업구조를 지닌 한일 양국의 협력방향에 대해 매우 인상적인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자인 고노 마사키 도와 홀딩스 사

장님께서서는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도와 그룹이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사업들에 대해 상세하게,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러한 환경과 경제의 상생프로젝트가 일본을 넘어 아시아로 확대되고 있고, 또한 한국기업과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산업폐기물 처리업 정도이고, 그걸 가지고 일정하게 기업의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의 정밀한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는데, 도와에서는 귀금속을 분리·회수해서 천연자원을 회수하는 사업이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플로어에서는 전반적으로 CO₂를 줄인다는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R&D, 연구개발 예산과 자금이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였고, 그 예로 LED조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환경을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은, 제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품, 지금은 에너지라는 말보다는 『에코효율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서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퇴출을 시키겠다는 쪽, 필요하다면 법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쪽입니다. 또 한 방향은 에코효율성이 큰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좀 더 R&D 쪽을 도와줘서 그 기술이 선진화되고 그 기술을 갖고 해외시장에도 진출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일 양국이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활발한 토론과 발표가 있었던 데 대해서 양국 기업인들 간에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귀한 말씀을 해 주신 네분의 발표자에게 여러분들이 큰 박수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후 세션을 마치고, 이 시간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안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끝났기 때문에, 20분 정도 Coffee Break를 갖고 폐회식은 3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offee Break>

6. 閉 會 式

(1) 共同聲明 採擇

司會【許南整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以下同一】 : 지금부터 폐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폐회식의 진행은 조석래 단장님께 부탁드립니다.

趙錫來 團長 : 이들 간에 걸쳐 아주 열띤 토론을 해주셨고 이번에 킨텍스에서 부품·소재조달공급전시회까지 열려서 많은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제 41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양측에서 서로 공동성명안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발표를 해서 여러분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공동성명안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許 南 整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古川洋三 (社)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제 41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안』 제41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09년 4월 16일, 17일 이틀동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조석래(趙錫來)단장 등 188명, 일본 측에서는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英胤)단장 등 124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하 생략, 공동성명 전문은 본 보고서 II항에 기재)



飯島 英胤 團長 : 그러면 일본 측 공동성명안을 낭독하겠습니다.

趙錫來 團長 : 이상으로 공동성명안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이 공동성명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일 의견이 없으시면 큰 박수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41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에 공동성명안이 원안으로 승인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의 회의 진행은 사무국에서 부탁드립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양국 단장님의 폐회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측의 이이지마 히데타네 단장님께서 폐회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2) 團長人事

飯島 英胤

(IIJIMA Hidetane)

日本側 代表團 團長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무사히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15일 정오 전에 제가 한국에 도착 하였는데 그저께 오전에 대통령 각하와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그리고 지식경제부 장관 등 세분의 장관님을 만났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한국의 네 분의 수상님을 만나 뵙고 지난 2년 전 뵈었을 때와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분 모두 한일 관계의 연계를 더욱 더 강화하는 점에서 매우 중시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외적으로도 한국과 일본은 서로 연계하면서 정치, 외교, 경제면에 있어서 서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저에게 전달해주셨습니다. 앞서 발표한 성명에도 있습니다만 특히 그 중에서도 한일 현황은 EPA·FTA에 대해서는 모든 각료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주시겠다는 든든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성명문에 담겨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의 회의를 통해서 어제의 기조강연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폭넓게 또한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제한된 시간이기에는 합니지만 매우 함축된 뜻이 많이 담긴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중에서는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으리라 생각하며 저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각 보고를 해주신 분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또 구체적인 분석과 제안 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신 결과가 오늘의 큰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발언 내용에 입각해서 공동 제안서에 확실히 나와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투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사항에서는 조석래 회장님과 이름을 같이하여 앞으로 양국 정부를 비롯한 관계처에 제언을 해 갔으면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제언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는 점은 저 스스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내년에는 오카야마 현의 오카야마 시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에 팜플렛이 있습니다. 북도에도 아마 배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아직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것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카야마 현의 오카야마 시는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깊은 협력 관계를 가지기를 지사님, 시장님, 상공회의소 즉 정계, 관계, 재계가 하나가 되어 강력하게 바람을 갖고 있는 현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대사가 바뀌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오카야마 현을 방문해서 지사님과 경제 관계자들과 친밀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협력 관계를 강화해가는 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카야마에 가게 되면 한국어로 된 여러 가지 팜플렛등이 준비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시면 오카야마 현이 한국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특히 호텔에서는 반드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데 많은 경우 한 호텔에 네 명까지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한국과 교류를 하고 있는 오카야마 시이고 특히 경치가 뛰어난 아름다운 곳이며桃太郎라는 전설에 나오는 복숭아의 고향

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3대 명승지 중 하나인 後樂園이 있는 곳이므로 부디 여러분들이 회의를 겸해서 일본의 봄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일본에서 4월에 개최될 예정이니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참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폐회 인사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이이지마 히데타네 단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석래 단장님께 폐회인사를 부탁드립니다.

趙 錫 來
韓國側 代表團 團長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대표단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주시고 특히 일본측에서 많은 분이 참석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킨텍스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부품소재조달·공급전시회가 열렸다는 것, 이것으로써 양국의 부품소재·무역에 있어서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시회에 참가해주신 일본측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써 양국의 무역이 좀 더 확대되면서 균형을 이뤄가는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 있어서도 이번 회의만큼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가까이 느낄 수 있었던 회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소 유타카 회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한국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해주신 점, 이것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싶은가하면 우리가 손님을 모실 때 손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아야만 손님에게 제대로 대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점, 예를 들면 노사 관계라든지, 특히 노사 관계 중에도 특히 퇴직금 지급을 료화 한다는 점은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며 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내년 1월부터는 아마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한국 재계에서도 그것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씩 투자 환경을 개선해나가서 한일 간 투자·협력을 훨씬 원활하게 하는 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규제 완화라든지, 금융 분야에 있어서 송금이 잘 안된다든지 혹은 중소기업에 일정금액을 대출해주거나 어려운 중소 기업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금융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다는 등의 솔직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와카이 사장님께서 중소기업의 여건에 대해서 자신은 처음에 여건을 다 맞춰서 왔는데 한국측이 료를 잘못 만드는 바람에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불때도 많은 참고가 되는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태까지 하지 못한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큰 성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 대해서도 이이지마 회장님과 저는 솔직하게 서로 이야기 함으로써 서로의 사이가 가까워진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있는 회의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발표해주신 분이 나 사회해주신 분이 아주 잘해주셔서 성과 좋은 회의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이이지마 회장님께서 말씀하

신 것처럼 내년 4월에 오카야마 현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번 모임을 성과 좋게 만들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閉 會

司會 : 조석래 단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 양일 간에 걸쳐 훌륭하게 회의를 진행해주신 조석래 단장님과 이지마 히데타네 단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틀 간에 걸쳐 회의 통역을 해주신 김혜원, 이정남 두 명의 통역사에게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 41회 회의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신 두 분 통역사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본 회의 진행을 위해 협력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년 일본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41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

VII. 兩國團長 共同記者會見



司會【許南整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以下同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경제협회 전무이사 허남정입니다. 지금부터 제 41회 한일경제인회의 양국 단장님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다음 스케줄 관계상 5시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미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끝난 폐회식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사무국에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 측 조석래 단장님께 이번 회의의 총괄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趙錫來 韓國側 代表團 團長: 우선 한일 양국의 경제 협력에 관해서 우리 경제인 회의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에서 310명이 넘는, 일본 측에서 124명, 한국 측에서 188명의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참가에 의해서 많은 성과 낸 회의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논의한 것은 무역·투자를 어떻게 확대해나가느냐 하는 문제와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의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어제부터 킨텍스에서 한일부품소재조달공급 전시회가 열렸는데 이는 양국 경제인 협회에서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간 염려되는 무역역조 중 부품소재에 의한 무역역조가 굉장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한국에서의 부품소재를 일본에 수출하고 또 일본의 부품소재를 한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러한 것은 여태까지 없던 일로서 큰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품소재전시회는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의 아소 총리와의 합의에 의한 양국 정상이크게 서포트를 하는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 해나가면서 양국의 무역을 확대, 균형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飯島 英胤(IIJIMA Hidetane) 日本側 代表團 團長: 조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러한 목적과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킨텍스에서 전시회가 열렸는데 이 전시회 외에도 일본에서 40명 정도 규모의 파견미션단을 파견하였습니다.

한국의 전용공업단지 공단을 시찰하고 일본의 중소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그러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와 함께 한일경제인회의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투자확대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주제로 여러 가지 토의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회의의 특징은 지금까지도 물론 그래왔습지만 지금까지 회의에 비해서 훨씬 실천적인 제안과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조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로의 솔직한 의견을 제안하고 그러한 의견들을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국 간의 환경이 성숙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역시 한일 간의 우호, 우정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투자와 무역, 인제교류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회의에서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명, 그리고 어느 분께 질문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質問者 : 두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토 통신의 사토라고 합니다. 이이지마 단장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과제로는 어떠한 것들을 염두 해 두고 계신지 두 분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飯島 英胤 團長 :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습니다만 경제교류를 하는 시점에서 먼저 과제를 말씀드리자면 한일 무역 역조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에 관해 이번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러한 투자에 관해서는 기업과 단체,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고 무역역조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무역역조 현상이 축소·균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균형으로 수정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해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부품소재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품소재와 관련된 중소기업이 한국에 많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투자를 확대했으면 한다는 요청이 있었고 또 한국 측에서는 한국 국내의 기술을 성장시켜서 조달 능력을 좀 더 키웠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이 대일 투자를 함으로써 한국의 노력을 통해서 수출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무역역조 현상을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FTA문제가 되겠습니다. FTA문제를 검토한지 벌써 십 수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진전이 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가운데 제가 한국에 삼일 전에 왔는데 세 분의 한국 장관님들을 뵈었습니다. 이 세 분의 장관님들 모두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FTA와 EPA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진전을 볼 수 있도록 모두 노력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저희에게 전달해주셨습니다. 정부 간의 실무

협정도 지금 심의관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재계에서도 일본 측에서 많은 서포트를 함으로써 이러한 EPA, FTA문제가 전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력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 문제, 투자의 활성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의 투자회라는 것을 지난 1년 간 결성을 해서 많은 토론을 해왔습니다.

여기 계신 조희장님과는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성숙된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서로의 진심을 털어 놓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구체적인 제안을 서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고용과 지적재산권, 그리고 금융에 관련된 것, 또한 기업의 정의에 관한 것 등 많은 것들을 서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본, 일본에서 한국으로 쌍방향에 대한 요청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제안드릴 예정입니다.



趙錫來 團長 : 그러면 한국 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양국의 관계는 무역역조, Inbalance가 문제시 됩니다. 그 Inbalance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해결의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투자 환경이 일본에서 의욕적으로

투자할 정도로 정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논의된 것이 한국의 노사관계입니다. 아직도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 측 기업은 한국의 노사 관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본에서는 노조전임자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전임자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물을 만들어 누구에게나 지급하게끔 되어있는데 일본에서는 상당히 Flexible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으므로 역시 일본 측에서는 그러한 점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파업문제라든지 노조 운동에 있어서도 때에 따라서는 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파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일본 측에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논의가 된 것은 한국의 규제 문제입니다. 한국의 규제가 글로벌 Standard에 안 맞는 면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Standard에 맞아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든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좀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규제를 많이 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 논의가 된 것은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혹은 특허를 취득하면 때에 따라서 지적 재산을 존중하지 않고 한국 측에서 몰래 써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환경이라면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진다는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민감한 문제까지 아주 솔직하

게 논의한 것은 이번 회의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司會 : 다음으로 한국 측에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質問者 : 연합뉴스의 이동경 기자입니다. 우선 이이지마 히데타네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번 회의에서 실천적인 제안과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천적인 의견 중 중점적으로 가장 빨리 시행해보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飯島 英胤 團長 : 지금 바로 실천을 했으면 하는 것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에 일본과 한국의 투자와 무역에 있어서 장애가 될 만한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아까 조 단장님께서도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바로 다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고 특히나 내년 1월부터 시작 되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정지와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복수 조합에 있어서도 일본 기업들이 실시될 것을 강하게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바로 실천했으면 하는, 혹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FTA와 EPA의 실무적인 협상이 좀 더 전진되기를 바라며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협상도 검토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양국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실천할 수 있고 실현이 가능한 협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한일 간의 인재교류, 그리고 고용이 더욱 더 확대되었으면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한일 모두 인재야말로 기업에 있어서, 국가 발전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므로 한국과 일본에서 하이레벨의 인재와 고용 기회를 더욱 더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가운데 IT기술 자격을 상호 인증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나왔었습니다. 그 밖에도 대학생들이 인턴십 도입을 상호 인증할 수 있도록 향후에 관계 부처에 제안을 해서 바로 실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趙錫來 團長 :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중소기업 간의 교류 내지는 협력, 상담회 등을 중시해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한경제협회 이이지마 회장님과 한국의 한일경제협회가 아주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면서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이라든지 혹은 거래의 확대, 서로 간의 아웃소싱, 부품을 만 들어서 조달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협력을 해 나가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司會 :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質問者 : 안녕하십니까, 저는 MBN의 정주영 기자입니다. 최근에 녹색 성장이나 에너지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 실질적으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해나가실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알려주십시오.

趙錫來 團長 : 에너지 절약이나 혹은 신 재생에너지 개발 분야에서는 일본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모색하자는 것에 대해 많은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도와 공업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만 최근에는 전자 제품에 여러 가지 희귀 금속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는 도시 광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 물건에서 희귀 금속을 회수하여 그것을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다시 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술을 도와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국에도 적용시킨다든지 또 토양을 오염시키는 중금속 등을 회수시키는 좋은 기술을 한국에도 적용하자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소개해가면서 서로 협력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토 프로토콜에 대해서인데 지구 온난화와 함께 가스 배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규제와 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례에 대해서 소개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서로 소개해나가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司會 :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

第41回 韓日經濟人會議 報 告 書

2009年 8月 發行

編輯兼發行人 智 光 薰
發 行 處 社團法人 韓日經濟協會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135-821 서울特別市 江南區 論峴2洞 112-15番地
(韓日財團B/D 4F)

TEL : 02-3014-9888 FAX : 02-3014-9899

THE 41st KOREA - JAPAN
BUSINESS CONFERENCE

2009.4.16~17
SEOUL, KOREA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4F, 112-15, Nonhyeon-Dong, Gangnam-Gu, Seoul 135-821, Korea

Tel : +82-2-3014-9888 / Fax : +82-2-3014-9899

<http://www.kje.or.kr> E-mail : kje@kje.or.kr